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일본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일본(Japan)
면적	377,975 km ² (자료원 : 총무성, 2021년 7월 발표 기준)
수도	도쿄
민족(인종)	대화족(大和族: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48.6%), 불교(46.3%), 기독교(1.0%), 기타(4.0%)
기후	사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 기후 남북 길이가 약 3,300km로 지역별로 기후 편차가 심함 - 북부 : 아한대 - 중부 : 온대 - 남부 : 아열대, 열대몬순
국가원수	일왕 : 나루히토(仁) 내각총리대신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2021년 11월 10일 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5-12-18 (자료원 : 외무성)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일기본관계조약	1965-12-18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같은 해 어업협정(6월),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문화재·문화 협정,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등도 체결
한일항공협정	1967-08-01	항공업무에 관련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1985-12-20	과학분야의 협력으로 상호이익 촉진을 위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신어업협정	1999-01-22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2002-06-01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 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	
한일투자협정	2003-01-01	투자의 자유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협정	
한일세관상호지원협정	2004-12-13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서로 지원하고관세범죄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세관 절차, 단속장비, 세관 직원의 훈련등 교류분야에서도 협력.	
사회보장협정	2005-04-01	사회보장에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형사공조조약	2007-01-26	형사에 관한 공조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간의 조약	

한일오픈스카이협정	2010-12-22	항공노선, 편수 등의 결정이 가능한 항공협정	
한일도서협정	2011-06-10	도서예 관한 일본과 한국간의 협정	
한일원자력협정	2012-01-2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한일 간 협정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2016-11-23	안전보장을 위한 비밀정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한 협정	

한국교민 수

416,389 명 (자료원 : 법무성 (2021.06.30.))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한일 간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문제, 위안부 문제, 징용공 배상 문제,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동해를 둘러싼 호칭 문제, 불상 도난 사건 등이 있다.

한편 징용공 재판 문제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시작으로 계류 중인 건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한일 간 입장 차로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021년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 양국 당국 간의 협의가 재개,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잠정 중단하고 12월에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되며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문제 해결 조짐이 보였으나, 2020년 3월 10일 양국 간의 정책 대화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요청 및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해결, 5월경 일본 측에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여, 2020년 6월 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재제소를 시행하였다. 이후, 양국의 관련 문제 대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는 전자/전기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많으며, 양국 간 무역 품목 도 산업 내 무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일간의 무역, 투자, 인적 교류는 최근까지 탄탄한 추이를 보여왔다. 제3국에서의 플랜트 수주와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한일 기업 간

의 연계가 증가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국 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또한, 위안부 합의, 징용공 판결 등에서 비롯한 양국 정치 갈등 상황이 일본의 대 한국 수출관리 강화 조치 때문에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규제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며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됐다.

2020년 11월,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및 ASEAN 10개국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한일 간 처음으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이 이루어졌다. 2022년 2월 협정이 발효되면 한일 간 FTA를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일관계 변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외수 위축으로 2020년 양국 간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71,121백만불로, 2년 연속 교역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화

최근 일본의 10대, 20대 젊은이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른바 제4차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는 한식당, 굿즈 판매점 등이 몰려 있어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이나 디저트 카페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드화 되어 다양한 한국문화 및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경유하여 한국 드라마, 영화를 접하는 남성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류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이전과 달리, 세대 및 성별을 아우르는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향후에도 한류에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양국 갈등상황으로 국민감정 격화, 지방도시 간 교류, 학생 교류 등의 중단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규제로 사실상 국가 간 왕래가 정지된 상황으로, 양국 관계 개선 등 정치, 경제적 이슈로 인한 향후 양국 간 문화교류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1.68	0.56	0.27	-4.4	
명목GDP (십억\$)	4,930.84	5,036.89	5,148.78	5,048.69	
1인당 GDP (PPP, \$)	41,408.95	41,722.89	41,936.73	40,048.32	
1인당 명목 GDP (\$)	38,903.3	39,818.8	40,801.66	40,146.07	
정부부채 (% of GDP)	231.42	232.51	234.86	256.22	
물가상승률 (%)	0.47	0.98	0.48	-0.02	
실업률 (%)	2.82	2.44	2.36	2.79	
수출액 (백만\$)	698,329	738,143	705,564	641,302	
수입액 (백만\$)	672,096	748,487	720,956	635,443	
무역수지 (백만\$)	26,233	-10,344	-15,392	5,859	-
외환 보유고 (백만\$)	1,202,071	1,208,958	1,255,322	1,312,160	
이자율 (%)	-0.1	-0.1	-0.1	-0.1	
환율 (자국통화)	112.17	110.42	109.01	106.77	

〈자료원 : IMF, Global Trade Atlas〉

경제 동향

코로나19 이전 최근 몇 년간 일본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 완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경제의 회복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어 왔다.

2012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71개월간 계속된 일본의 경기 확대세는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수출 감소 및 국내 소비세 인상(2019년 10월) 등의 영향에 따라 후퇴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점진적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2019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7.4%(연율 환산치 기준)).

그러나, 전 세계 경기를 위축시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2020년 점진적 회복세를 예상했던 당초 분석과 달리 2020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Delta 4.4\%$ 를 기록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을 1년 내내 받은 한 해로, 리먼 사태가 발생한 2008년($\Delta 3.6\%$)을 뛰어넘어 직접 비교 가능한 1995년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다.

2020년 연말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2021년 1월 두 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되어 음식점 단축영업 및 외출자제 등으로 개인 소비가 위축되면서 2021년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전년대비 $\Delta 1.1\%$ (연간 환산 기준 $\Delta 4.1\%$)로 3분기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1년 4월 세 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됐으나, 왕성한 소비 의욕 등이 기폭제가 되어 개인소비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반도체 제조장비 및 DX 대응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2021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4\%$ (연간 환산으로는 $+1.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반도체 공급난으로 자동차 생산이 크게 감소하고, 개인소비가 다시 위축되면서 2021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Delta 0.8\%$ (연간 환산 기준 $\Delta 3.0\%$)로 시장의 사전 예측치($\Delta 0.56\%$. 일본경제연구센터 ESP 포캐스트 조사)보다 크게 부진한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 10월 1일부로 긴급사태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서비스 관련 소비 회복을 중심으로 개인 소비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예측치(일본경제연구센터 발표 자료)는 전기대비 연간 환산 기준 $+4.9\%$ 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 침체, 반도체 등 주요 부품 부족에 따른 자동차 감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경기 역풍 요소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전망

경제전망	2022년 일본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약 3.2%(IMF 발표치)로, 코로나19의 위협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일본 경제도 가계소비, 비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수출입의 경우 주요국 경제회복을 배경으로 Δ철강·비철금속, Δ정보통신 관련 전자부품 등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의 증가세가 관측되고 있으나,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 감산의 영향으로 자동차 품목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한편 수입은 국내외 경제활동 회복에 따른 생산 및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Δ원유, Δ석탄, Δ액화천연가스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Δ의류, Δ자동차 관련 부품 등의 품목은 위축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개인소비는 2021년 10월 긴급사태 해제 및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외식, 국내여행 등 서비스 지출 분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제·사회활동의 정상화 기대에 힘입어 소비는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제조업분야의 생산용·업무용 기계 중심으로 투자가 회복되고 있으며, 비제조업 분야의 경우 통신업(기지국, 5G 투자) 및 물류(EC 소비 확대), 건설업 DT 투자의 회복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향후 경기 불투명감은 남아 있지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기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정상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기 개선에 따라 회복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향후 오미크론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향후 추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35,318,679,546
2	중화인민공화국	133,358,436,719
3	대한민국	53,515,731,722
4	Other Asia, nes	40,875,071,119
5	홍콩	35,591,348,571
6	타이	29,576,437,944
7	싱가포르	23,190,962,559
8	독일	19,152,763,175
9	오스트레일리아	16,102,324,769
10	베트남	15,434,534,29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44,518,460,810
2	미국	141,020,673,335
3	대한민국	52,635,793,135
4	Other Asia, nes	42,660,266,125
5	홍콩	34,844,824,793
6	타이	32,413,021,841
7	싱가포르	23,635,234,390
8	독일	21,142,609,615
9	오스트레일리아	17,224,264,420

10	베트남	16,632,294,303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140,673,810,463
2	중화인민공화국	135,310,721,026
3	대한민국	46,456,635,415
4	Other Asia, nes	43,249,665,782
5	홍콩	33,965,332,295
6	타이	30,348,619,360
7	싱가포르	20,601,642,478
8	독일	20,454,952,753
9	베트남	16,764,322,323
10	오스트레일리아	14,584,427,67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41,644,652,177
2	미국	119,016,251,496
3	대한민국	44,918,098,988
4	Other Asia, nes	44,533,167,103
5	홍콩	32,253,595,629
6	타이	25,673,173,748
7	독일	17,980,871,960
8	싱가포르	17,930,650,537
9	베트남	17,305,697,127
10	말레이시아	13,067,299,64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64,734,734,599
2	미국	74,201,408,614
3	오스트레일리아	39,016,800,616
4	대한민국	28,265,256,926
5	사우디아라비아	27,805,725,985
6	Other Asia, nes	25,736,855,695
7	독일	23,476,664,857
8	타이	23,243,634,756
9	아랍에미리트	20,974,686,065
10	인도네시아	20,078,817,633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74,680,135,881
2	미국	83,768,685,493
3	오스트레일리아	45,857,408,357
4	사우디아라비아	33,802,945,647
5	대한민국	32,379,110,429
6	아랍에미리트	27,664,239,930
7	Other Asia, nes	27,542,710,587
8	독일	26,049,528,640
9	타이	25,483,975,619
10	인도네시아	21,741,350,81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69,448,123,504
2	미국	81,462,543,882
3	오스트레일리아	45,645,216,825

4	대한민국	29,861,364,563
5	사우디아라비아	27,678,287,335
6	Other Asia, nes	26,961,527,846
7	아랍에미리트	26,820,598,475
8	타이	25,954,621,241
9	독일	25,036,795,095
10	베트남	22,778,372,64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64,904,300,612
2	미국	71,971,367,378
3	오스트레일리아	35,958,601,708
4	대한민국	27,019,924,813
5	Other Asia, nes	26,892,284,632
6	타이	24,110,541,282
7	베트남	22,268,256,511
8	독일	21,345,091,891
9	사우디아라비아	18,448,238,474
10	아랍에미리트	16,396,892,781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8,071,253,459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4,067,280,812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0,419,651,649

4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8,044,314,386
5	854239	기타	10,825,293,471
6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0,711,746,595
7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0,315,482,574
8	854232	메모리	9,757,448,622
9	844399	기타	8,259,290,984
10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8,007,463,055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9,398,016,214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650,392,067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1,886,735,787
4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9,000,060,274
5	854232	메모리	11,617,434,561
6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1,591,084,476
7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1,072,162,474
8	854239	기타	10,816,707,406
9	271019	기타	8,634,520,461
10	844399	기타	8,122,095,81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9,830,769,90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4,930,507,387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8,156,402,944
4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6,982,564,156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6,450,646,400
6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1,597,572,862
7	854239	기타	11,522,155,683
8	854232	메모리	11,060,898,251
9	271019	기타	9,424,456,685
10	844399	기타	7,612,167,41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1,063,707,499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9,161,849,987
3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18,414,895,827
4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14,289,564,894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159,830,407
6	854232	메모리	12,310,427,136
7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2,030,640,116
8	854239	기타	11,192,839,928
9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7,427,021,589
10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7,013,193,771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3,754,236,982

2	271111	천연가스	34,918,015,915
3	270112	유연탄	21,196,454,484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6,904,537,524
5	300490	기타	12,294,539,894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296,758,699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0,254,882,901
8	854239	기타	9,881,122,636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8,336,666,795
10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886,610,50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81,357,168,023
2	271111	천연가스	42,890,856,034
3	270112	유연탄	23,693,294,928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7,707,237,159
5	300490	기타	13,875,875,597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3,777,772,811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728,056,927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9,426,377,407
9	854239	기타	9,005,242,874
10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7,554,656,534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3,158,054,560
2	271111	천연가스	39,965,326,711
3	270112	유연탄	21,635,579,412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5,439,483,521
5	300490	기타	13,943,575,704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872,050,814
7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0,645,284,103
8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9,026,944,527
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8,291,557,927
10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236,136,26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3,495,449,518
2	271111	천연가스	30,076,823,231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4,908,736,111
4	270112	유연탄	14,817,281,209
5	300490	기타	14,114,548,412
6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355,596,878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0,900,653,309
8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9,811,991,743
9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9,370,417,733
10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149,905,899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26,816	55,125	-28,309
2018	30,529	54,604	-24,075
2019	28,420	47,581	-19,161
2020	25,098	46,023	-20,925
2021	24,521	44,641	-20,12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12	은	941	63	878
2	1334	나프타	727	0	727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709	2,560	-1,852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71	1,332	-461
5	1332	경유	398	5	393
6	1331	휘발유	646	63	582
7	1333	제트유및등유	724	6	718
8	2140	합성수지	586	795	-210
9	2273	화장품	638	161	476
10	6133	냉연강판	501	228	27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112	은	1,131	63	1,068
2	1334	나프타	927	0	927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848	2,475	-1,627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99	1,212	-413
5	1332	경유	796	1	795
6	1331	휘발유	754	157	597
7	1333	제트유및등유	736	0	736
8	2140	합성수지	697	748	-51
9	2273	화장품	642	143	499
10	6133	냉연강판	617	223	39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70	3,647	-3,478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709	2,560	-1,852
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471	1,567	-1,097
4	8313	개별소자반도체	130	1,452	-1,323
5	6184	고철	31	911	-880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71	1,332	-461
7	2110	기초유분	159	1,049	-891
8	6132	열연강판	418	976	-558
9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50	734	-485
10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89	1,069	-88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24	4,338	-4,214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848	2,475	-1,627

3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386	1,446	-1,060
4	8313	개별소자반도체	130	1,381	-1,251
5	6184	고철	56	1,367	-1,311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799	1,212	-413
7	2110	기초유분	310	1,126	-816
8	6132	열연강판	507	1,102	-595
9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41	904	-663
10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151	893	-74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수소연료전지		
해당전략(택1)	2-1. 탄소중립을 위한 비장의 카드, '그린이코노미' 분야 공략 (오사카 - 안재현)		
HS Code	8501	수입액('20/US\$백만)	1,594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63
선정사유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의 변화(전기, 수소연료)		
시장동향	일본 수소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위해 수소 스테이션을 확충하고 있으며 상용차의 FCV 도입을 가속화 하고 있음		
경쟁동향	(가정용) Panasonic, AISIN Seiki가 시장을 선도 (산업용)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Fuji Electric, KYOCERA 등이 연료전지시스템 공급중		
진출방안	산업용 전지의 경우 한국내에서도 개발이 활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고효율성 제품 개발 필요 일본 완성차 제조사 및 Tier 1 벤더와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수소차 관련동향 지속파악 필요		
품목명 2	리튬이온 축전지		
해당전략(택1)	2-1. 탄소중립을 위한 비장의 카드, '그린이코노미' 분야 공략 (오사카 - 안재현)		
HS Code	850760	수입액('20/US\$백만)	1,338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79
선정사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축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태양열 발전을 통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축전형> 라이프스타일이 보급되며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 수요가 증가		
시장동향	대형 포터블 전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비하면서 캠핑시에도 즐길 수 있는 <포터블> 형식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쟁동향	소형부부문에서는 중국 ANKER, 일본 ELECOM, 대만 ADATA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 대형 부문에서는 미국 Jackery, 일본 JVC KENWOOD, 중국 ANKER가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유통 루트는 EC 등 다양한 판매처가 있어 EC를 통한 직접 판매와 가전양판점 모두 활용하길 추천.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플랫폼을 통한 입점도 추천하고 있다.		
품목명 3	기지국		
해당전략(택1)	2-2. IT강국 이점을 활용한 'DX 혁신' 분야 선제적 대응		
HS Code	851761	수입액('20/JPY백만)	92,747
수입관세율(%)	무관세	대한수입액('20/JPY백만)	42,498
선정사유	일본의 5G 설비투자 확대, Local 5G 보급 예상으로 기지국 및 관련부품 수요 확대 전망		

시장동향	'25년경 11조 3,530억엔 규모 시장 예측(후지키메라총연), Local 5G 본격화시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일본 IT제조사를 중심으로 국산화 움직임이 활발 한편, 미국의 화웨이 규제 등에 따라 중국산 수요는 감소중인 상황		
진출방안	(통신사) 기체결중인 기업과의 납품을 중시하여 신규기업의 진입은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우리기업의 납품이 상당수 (Local 5G) 현지 제조사와 적극적 파트너링 통해 시장 진출		
품목명 4	센서		
해당전략(택1)	2-2. IT강국 이점을 활용한 'DX 혁신' 분야 선제적 대응		
HS Code	902590 등	수입액('20/JPY백만)	10,635
수입관세율(%)	무관세	대한수입액('20/JPY백만)	107
선정사유	IoT 등 DX를 위한 필수적 부품으로,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통신 등 다양하게 활용중 향후 인프라 보급에 따라 활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장동향	산업용 센서시장은 '20년 1조 1,360억엔으로, '24년 1조 4,540억엔 규모로 확대 전망(야노경제연구소), 진동, 온도, 전류, 압력, 광전, 광, 레이저변위 등 다양한 센서 시장 확대		
경쟁동향	자국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자국산 중심의 시장이 형성,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미국 등, 한국은 10위 수입국		
진출방안	자사 특화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접목한 제품 제조사 발굴 필요, 현지 전문상사 및 IT 제조업 중심 접촉이 필요하며, 상담회전사회 등 현지 오프라인 행사 참여 통한 시장개척이 바이어 발굴시 유효		
품목명 5	화장품		
해당전략(택1)	2-3. 온라인 EC 플랫폼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시장도 개척		
HS Code	3304	수입액('19/US\$백만)	1,402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19/US\$백만)	404
선정사유	한국 화장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화장품 수입시장은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2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 한류 화장품이라는 분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침투하고 있음		
시장동향	일본 대형 유통망이 한국상품 특별전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한류로 인해 일본 화장품 트렌드가 한국 화장품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경쟁동향	(일본 브랜드) 시세이도 등 중저가 제품을 출시하는 가격 중시의 움직임을 보임 (해외 브랜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확대 (공통) 마스크 착용, 웹 회의의 증가에 따른 얼굴 노출 등 코로나19로 변화한 생활에 맞춘 제품(화장품 픽서, 눈화장 제품, 주름 개선 제품)의 발매에 촉각		
진출방안	한류 화장품이라는 분야가 등장하면서 젊은 층의 소비는 새로운 한류붐의 원동력이 되어 있음 주소비층을 타깃한 온라인 연계 마케팅이 유효 한국의 코로나 아이디어 상품에 주목하고 있어 대일진출을 위한 바이어 및 소비자 샘플 테스트를 거쳐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 일본시장에는 없는 특색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임 * 예 : 한국 메이크업 픽서 전문 브랜드의 진출		

품목명 6	화장품		
해당전략(택1)	2-3. 온라인 EC 플랫폼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시장도 개척		
HS Code	3304999000	수입액('22/US\$백만)	98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2/US\$백만)	292
선정사유	코로나 19 이후 손소독이 일상화되면서 피부 트러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핸드크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시장동향	일반 유통화장품이 42.2%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화장품과 유통 구조는 비슷함. 최근에는 선물용으로도 핸드크림이 각광을 받고 있어 포장 디자인에도 신경을 쓰는 중		
경쟁동향	일본 주요 사업자는 가오, 유스킨 제약, 로토제약, 존슨앤존슨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 코세, 시세이도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진출방안	최수 주문 수량이 높아 일본 바이어들이 주문을 어려워하는 점이 있음. 또한 일본 바이어 특유의 조심스럽고 천천히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을 이해하며 신중하게 진행하길 추천		
품목명 7	골프용품		
해당전략(택1)	2-4. 가성비템에서 프리미엄으로, 소비재 시장의 유행 선도		
HS Code	9506.31, 9506.32	수입액('21/US\$백만)	23,369
수입관세율(%)	무관세	대한수입액('21/US\$백만)	316
선정사유	코로나19 속 골프가 2030세대에게 안전한 레저활동으로 '20년 골프 입문자 60만명 증가 (야노경제, 21.4월)		
시장동향	시중 물량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산의 비중은 미미함		
경쟁동향	OAKLEY, PEARLY GATES, Asics, Adidas 등 일본 국내외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다수 존재하며, 일본제품과 해외제품 간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음		
진출방안	일본 내 한국 골프용품에 대한 인지도신뢰도는 아직 미미하나,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마케팅으로 한국산 골프채, 골프공을 사용하는 골프스타나 한류스타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일본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		
품목명 8	한식 레토르트		
해당전략(택1)	2-4. 가성비템에서 프리미엄으로, 소비재 시장의 유행 선도		
HS Code	1602.32	수입액('21/US\$백만)	1,213
수입관세율(%)	6%(삼계탕기준) 1602.32-290	대한수입액('21/US\$백만)	2.6
선정사유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속 외식 수요의 내식으로의 이동,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회식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보관과 조리가 쉬운 레토르트 식품의 판매가 크게 늘어남. 또한, 이웃 외식 업체나 어패럴 등 이종업계의 시장진입이 증가하면서 일본 내 레토르트 시장의 확대가 기대됨		
시장동향	20년 기준 일본 국내 레토르트 식품 시장규모는 2,992억엔으로 19년 대비 9.4% 성장(TPC 마케팅 리서치)		

경쟁동향	하우스식품, 에스비 식품, 토요수산, 오오즈카식품, 글리코 등의 식품기업 외에도 외식 업체, 어패럴 등 이중업계의 레토르트 시장 진입도 활발		
진출방안	한국 여행을 가는 못하는 일본 소비자가 한국의 '본고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시장진출, 일본인 관광객에게 유명한 한국 음식점과의 콜라보 제품도 생산있을 것임.		
품목명 9	차량용 센서		
해당전략(택1)	2-5.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납품 기회 확대		
HS Code	903190000	수입액('20/US\$백만)	551,149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26,846
선정사유	전기차 등 미래차가 점차 고성능화 및 자동화됨에 따라 탑재되는 차량용 센서의 개수가 늘고 또한 센서 종류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어 센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		
시장동향	세계 자동차 센서 시장은 '20~'27년 동안 연평균 10.2%성장 예정이며, 세계 시장 규모는 '19년 164억달러에서 '27년 376.5억달러로 예측됨. 최근에는 고가의 라이다, 레이더를 배제하고 카메라 센서 활용을 늘린 자율주행 기술이 트렌드이기에, 관련 기술을 확보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존재함		
경쟁동향	무라타, 덴소, 히타치AMS, 로옴, 소니 등		
진출방안	국내기업 중 경쟁력 있는 차량용 '초음파 센서' 및 최근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카메라 및 이미지 센서' 등의 일본 및 해외 진출 일본 자동차 기업으로의 진출 지원		
품목명 10	NFC칩		
해당전략(택1)	2-5.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납품 기회 확대		
HS Code	852300000	수입액('20/US\$백만)	3,287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43
선정사유	NFC(근거리통신)칩은 '10년 스마트폰에 탑재되기 시작된 뒤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음. 다른 무선통신과 달리 동력원이 필요 없다는 장점 덕분에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음		
시장동향	세계 NFC칩 시장은 20~27년 동안 연평균 20.8%성장 예정이며, 세계 시장 규모는 '20년 42억달러에서 '27년 157억달러로 예측됨. 최근에는 스마트 물류 및 차량용 무선 충전 및 통신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경쟁동향	NXP반도체, TI,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소니 등		
진출방안	무선 충전 및 스마트 록 장치 등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미래차에 국내기업의 진출을 추진하고, 또한 해외 진출 일본기업의 공급망 스마트화시 필요한 NFC칩 및 RFID칩의 공급 추진		
품목명 11	전동 킥보드		
해당전략(택1)	2-6. 일본 대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신성장 분야 진출		
HS Code	871160	수입액('22/US\$백만)	136
수입관세율(%)	무관세	대한수입액('22/US\$백만)	0.06

선정사유	일본의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대중교통 적자 및 교통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 증가, '21년 4월부터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공공도로 시험 주행 개시		
시장동향	일본의 MaaS시장은 2030년 2조 8,600억 엔 규모로 2018년 대비 3.5배 확대될 전망이며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은 1조 엔 규모로 예상됨. 일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이제 개척 단계로 한국의 공유 모빌리티 기업의 진출 기회 다		
경쟁동향	일본 내 대표적인 전동 킥보드 개발 ·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Luup, 모빌라이드, 엑스, 하세가와 공업 등이 있음. 해외 수입 킥보드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91%로 압도적인 1위이며, 대만이 8%로 뒤를 이음.		
진출방안	일본 공공도로 상황에 적합한 공유 킥보드와 함께 신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마쿠아케 등의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임.		
품목명 12	웨어러블 기기		
해당전략(택1)	2-6. 일본 대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신성장 분야 진출		
HS Code	851712	수입액('22/US\$백만)	1,044
수입관세율(%)	무관세	대한수입액('22/US\$백만)	9.22
선정사유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지방을 중심으로 원격 진료 및 자가 건강 모니터링 제품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IoT를 활용한 웨어러블 건강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2년 일본 웨어러블 기기시장은 2017년 대비 106.9% 증가한 1398억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관리형 웨어러블 기기는 '17년 대비 130%확대된 388억 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는 107%확대된 1,010억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일본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에서는 애플, Fitbit 등 미국 기업 제품이 강세를 보임. 그중에서도 애플워치의 애플워치는 일본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의 약 32%를 차지함. 일본 기업으로는 Casio, Seiko, Sony등이 있음. 해외 웨어러블 기기 수입비중은 중국이 89%로 압도적인 1위이며, 한국 제품의 수입 비중은 0.09%로 미미한 수준		
진출방안	최근 일본은 초고령화사회 노인돌봄 수요에 대비한 치매예방 앱 등이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으므로, 고령자가 스마트폰 조작법을 몰라도 건강관리, 위치추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면 웨어러블 시장의 새로운 시장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가상발전소
해당전략(택1)	2-1. 탄소중립을 위한 비장의 카드, '그린이코노미' 분야 공략
선정사유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전력 공급이 날씨 등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해 효율적인 전력 운영 관리 시스템이 필요
시장동향	경제산업성 주도로 16년 4월 에너지 혁신 전략에 의거하여 가상 발전소 관련 기술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5개년 목표를 실시 중

경쟁동향	간사이전력, 통합 코디네이터 및 자원 수집기 제어능력 실험 진행 중이며 전력회사 및 제조업체 24개사 참가 중 도쿄전력은 여러 코디네이터가 공통기반을 사용하여 연계될 수 있는지 실험 중으로 자가용 발전 및 대규모 전지 중심으로 릴레이 제어 시스템 구성 중
진출방안	일본의 전력 회사는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을 통해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어 해당 대기업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품목명 2	물류 관련 솔루션
해당전략(택1)	2-2. IT강국 이점을 활용한 'DX 혁신' 분야 선제적 대응
선정사유	일본의 DX 움직임 및 코로나로 정착된 EC 시장 활성화로 일본 현지 물류시장 내 디지털화 움직임 대두
시장동향	일본의 차세대 물류 시스템 시장은 '20년 약 5,798억엔으로, '25년경에는 '20년 대비 162.9% 성장 전망 로봇 등 활용 확대와 함께 AI를 활용한 물류 효율화 중심의 도입 움직임 관측
경쟁동향	일본 물류기업(일본우정, 야마토우유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이 확대중이며, IT기업(NEC 등) 또한 개발 박차
진출방안	日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활용한 프로젝트 진입과 함께, 스타트업 피칭세션 등 매칭행사 활용한 시장 진입 필요
품목명 3	디지털 업무 솔루션
해당전략(택1)	2-2. IT강국 이점을 활용한 'DX 혁신' 분야 선제적 대응
선정사유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의 지속적 DX 추진으로 업무 관련 디지털 솔루션 도입니즈가 지속 확대중
시장동향	일본의 업무 DX 시행율은 45.3%로(정보처리추진기구), 중소기업(규모), 제조업(분야)의 DX 도입이 더딘 상황 정부 보조금 등으로 해당 기업의 DX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제조 프로세스 개선 및 타부문과 연계된 솔루션 필요
경쟁동향	일본 IT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 상황으로, 우리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SAP, ORACLE 등 ERP 분야의 경우 해외 유명기업의 진출 또한 높음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사 발굴, 협력을 통해 자사 보유 솔루션의 철저한 현지화가 필요하며, 판매 또한 현지 파트너사를 경유한 간접 시장진입이 주효
품목명 4	구독서비스
해당전략(택1)	2-3. 온라인 EC 플랫폼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시장도 개척
선정사유	일본의 디지털 문화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형태가 많음. EC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체험을 해보길 원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음

시장동향	2019년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증가했지만 실제 철수한 기업들도 다수 있어 상품에 따라 구독형 서비스의 성공이 갈리고 있음
경쟁동향	시세이도 맞춤형 화장품 구독 서비스 Optune의 서비스를 종료 기린, 구독형 맥주 서비스 <홈탭> 사용자 확대로 2만명의 구독자 확보
진출방안	상품과 소비자의 성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일본 시장에 맞는 구독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짐 고객 데이터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IoT 기기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구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수임
품목명 5	치매예방솔루션
해당전략(택1)	2-2. IT강국 이점을 활용한 'DX 혁신' 분야 선제적 대응
선정사유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노인 복지/개호분야에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치매예방솔루션 분야를 선정
시장동향	2030년 일본 전 국민의 23.2%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전망이며, 치매인구는 8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후생노동성, 2015)
경쟁동향	Hitachi, SoftBank, Sony, Panasonic, Fujitsu, NEC 등 전자기기 및 IT기업에서 개호용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제약사, 보험회사, 외국계 IT기업(IBM 등)의 진입 등 이중업계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음.
진출방안	일본 정부는 '미래투자전략 2018'에서 치매대책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과 제휴해 치매환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함. 주거·교통·상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치매 관련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바, 일본 고령층의 관점에서 필요한 니즈를 발굴하여 기 진출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품목명 6	보안 솔루션
해당전략(택1)	2-2. IT강국 이점을 활용한 'DX 혁신' 분야 선제적 대응
선정사유	일 정부의 2022년 4월까지 디지털청 설립 선언으로 지자체, 교육, 의료기관 등의 IT화 가속화 전망. IT기술자의 부족과 정보보안 인재의 육성 경험치 부족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자사 내 보안문제를 전문기업에 의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높은 IT경쟁력으로 국내 기업의 보안 솔루션 분야를 선정

시장동향	2021년도 정보보안 시장규모는 1조 2,127억엔으로 2020년 1조 1,599억엔 대비 4.6% 증가함. ICT 시장의 확대와 함께 사이버 공격의 증가 및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안에 대한 의식이 낮은 일본 중소기업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상황이라 향후 일본 내 정보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일본 네트워크 시큐리티 협회, 2021.6.30) * 닛케이신문이 주요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후 사이버공격이 증가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3.8%가 “증가했다”고 답하였으며, “정보보안 관련 투자를 늘리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대상의 68.4%가 “늘리겠다”고 답함
경쟁동향	단말관리, 보안솔루션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 7억 엔 미만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5%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주요 기업) MOTEX, Sky, Hitachi SOL, NEC 등 일본기업 비중이 높음
진출방안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전시회 참가가 가장 큰 영업장이 되며 자사 기술/제품 뿐만 아니라 타사의 최신 기술/제품을 볼 수 있는 기회이자 전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임. 코로나19 속 온라인전시회에 참가하고 향후 입국제한 완화 시 직접 방문등을 통해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함.
품목명 7	5G 로컬 서비스 및 IoT 솔루션
해당전략(택1)	2-5.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납품 기회 확대
선정사유	한·일 양국의 기업이 같은 해외 현지 거점에 있으면 ‘5G 로컬 서비스 및 IoT서비스’를 통해 부품의 물류서비스 등 공급망을 디지털화 하여 관리가 가능함
시장동향	일본 내 로컬 5G 시장규모는 '21년 20억엔에서 '25년 470억엔으로 공장자동화 및 물류 관리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가 예상
경쟁동향	후지쓰, NTC, NS Solutions, 코세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 다수 통신관련 중소/ 대기업
진출방안	현재 국내 스마트 공장 등 IoT 서비스 및 통신망관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 일본 기업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현지상담회 추진
품목명 8	자동차 부품 R&D 서비스
해당전략(택1)	2-5.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납품 기회 확대
선정사유	제 3국 진출 국내기업의 일본 완성차 및 Tier 1으로의 부품 공급시 마이너한 설계 변경시 필요한 R&D 서비스 수요 증가 (* 현지 공장의 경우, 연구개발파트가 없는 경우가 많이 R&D 서비스가 필요)
시장동향	R&D 서비스에 필요한 3D설계툴시장은 '22년 146억달러에서 '25년 228억달러로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임

경쟁동향	다쏘시스템 등 해외 솔루션 기업 및 일본 내 자동차 1·2차 벤더 기업들의 설계, 실험 등을 수탁받아 진행하는 중소기업 다수 존재
진출방안	국내의 R&D서비스 기업과 해외진출 일본 기업에 공급이 확정된 현지 소재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과의 상담 등을 통한 진출 추진
품목명 9	AI 비대면 학습 앱
해당전략(택1)	2-6. 일본 대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신성장 분야 진출
선정사유	일본 정부는 'Society5.0' 실현을 위해 시간·거리 제약 없는 원격 수업,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실현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 구축에 박차
시장동향	'20년 일본의 비대면 학습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약 22.4%확대된 2,880억 엔이며, '26년도에 3,469억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경쟁동향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플랫폼 '미래교실'에 등록된 에듀테크 기업수는 '21.10월 기준 총 185개사로 주요 기업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개발사 Libry, ICT교재 개발사 SuRaLa Net 등이 있음.
진출방안	공교육·교육기업의 학습 서비스, 기업 임직원 교육 등 B2B 영역을 중심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토익, 토플 등 자격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AI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일본에서 더 큰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
품목명 10	AI 멘탈 헬스케어 서비스 앱
해당전략(택1)	2-6. 일본 대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의 신성장 분야 진출
선정사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교류 제한 및 고립된 생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중
시장동향	'20년 일본의 멘탈·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14년 대비 약 2.6배 성장한 217.3억 엔으로 추정됨. 코로나19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향후 기업이 멘탈·헬스케어 분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
경쟁동향	일본의 멘탈 헬스케어 분야는 카운슬링, 셀프 마인드 관리, 기업 임직원 스트레스 케어, 멘탈 헬스케어 커뮤니티 등 다양하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앱 개발사 'Lafool', AI 대화형 멘탈케어 서비스 제공기업 'emol' 등이 있음.
진출방안	일본 직장인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한국 직장인과 유사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점에 착안, B2B시장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임직원 멘탈케어·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일-싱가포르 EPA	싱가포르	2002-01-13	2002-11-30	2007년 9월 개정 의정서 발효
일-멕시코EPA	멕시코	2004-09-17	2005-04-01	2007년 4월 추가 의정서 발효, 2012년 4월 개정 의정서 발효
일-말레이시아 EPA	말레이시아	2005-12-13	2006-07-13	
일-칠레 EPA	칠레	2007-03-27	2007-09-03	
일-태국EPA	태국	2007-04-03	2007-11-01	
일-인도네시아 EPA	인도네시아	2007-08-20	2008-07-01	
일-브루나이 EPA	브루나이	2007-06-18	2008-07-31	
일-ASEAN EPA	ASEAN	2008-03-26	2018-05-24	200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
일-필리핀 EPA	필리핀	2006-09-09	2008-12-11	
일-스위스 EPA	스위스	2009-02-19	2009-09-01	
일-베트남 EPA	베트남	2008-12-25	2009-10-01	
일-인도 EPA	인도	2011-02-16	2011-08-01	
일-페루 EPA	페루	2011-05-31	2012-03-01	
일본-호주 EPA	호주	2014-07-08	2015-01-15	
일-몽골 EPA	몽골	2015-02-10	2016-06-07	
CPTPP11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2018-03-08	2018-12-30	
일-EU EPA	EU	2018-07-17	2019-02-01	
일-미 무역협정	미국	2019-10-07	2020-01-01	
RCEP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2022-02-01	2022년 2월 1일 발효 예정
일-영 EPA	영국	2020-10-23	2021-01-01	

〈자료원 : 외무성〉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일-캐나다 EPA	캐나다	2014년 이후 교섭 중단	
일-콜롬비아EPA	콜롬비아	2015년 이후 교섭 중단	
한중일 FTA	한국, 중국	교섭 진행 중(최근 교섭 2019년 11월)	
일-터키 EPA	터키	교섭 진행 중(최근 교섭 2019년 10월)	
일-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2007년 이후 교섭 중단	
한일 EPA	한국	2011년 이후 교섭 중단	

〈자료원 : 외무성〉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69조 제1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기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된다.

- 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 ② 지정 약물 (의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은 제외)
- ③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 ④ 폭발물
- ⑤ 화약류
- ⑥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 ⑦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관한 의료 법률 제6조 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및 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 ⑧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⑨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 ⑩ 아동 포르노
- ⑪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⑫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관세법 이외 식물방역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라서도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또한 불법이 아닌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허브, 아로마 오일, 입욕제 중에는 마약이나 지정약물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JIS 제도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 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JIS 마크 표시제도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 광공업제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됐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대폭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됐다. 구 JIS 마크 제도의 경과 조치 기간은 2008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는 신 JIS 마크 제도로 전면 변경됐다.

- JIS 인증 대상 품목: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펄프, 종이, 관리 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등의 분야
- JIS 인증 획득 요구사항: JIS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JIS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JIS 마크를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국가에 등록된 등록인증기관 관련 정보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 (<http://www.jisc.go.jp>)의 홈페이지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등록 인증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개별 인증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인증기관은 「해당 JIS」, 국가가 정한 「인증지침」 및 등록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속」을 이용해 심사하고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국내 외), 수입업자(일본국내), 판매업자(일본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157개 품목은 한국에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바, 품목 리스트를 참고
- 참고 : 한국표준협회 JIS 획득 지원 안내 및 품목리스트 (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

2) JAS 제도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 법)에 근거해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농림수산물 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으로 제조 시설, 품질 관리, 제품 검사, 생산 행정 관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인정 사업자)가 된다.

대상 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JAS 규격은 2021년 4월 기준 72품목에 대해 214 규격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가공식품의 예를 들면, ① 명칭, ② 원재료명, ③ 내용량, ④ 유효기간 ⑤ 보존 방법, ⑥ 원산국 명, ⑦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이다. 한편 JAS 마크는 식품 종류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다르다.

2021년 4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된 JAS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 참고 : 농림수산물 JAS 제도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index.html)
농림수산물 JAS 품목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kikaku_itiran2.html)

3) 전기용품 형식 승인 - PSE 마크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2021년 4월 기준 약 450품목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지정,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도구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모든 전기제품은 아니며 전기용품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정전기용품(116개)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으로 분류된다.

동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사업 신고서에 의해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 대신(경제산업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한 사업자(신고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규격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에 합격해 적합성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도 자주 검사(일본국가가 정한 검사방식에 의한 검사로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가 필요하다. 2021년 4월 시점에서 등록검사기관 수는 일본 국내 7개 기관, 해외에 8개 기관이 있다.

- 참고 :
- PSE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s://www.pse-info.com/pse.html>)
- 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index.htm>)

4) PSC 마크

소비생활용 제품 중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는 PSC마크가 없으면 판매

가 불가하다. PSC 마크가 필요한 품목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 있는 '특정제품'과 그 가운데 특히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별특정제품'으로 분류된다.

대상품목은 특별특정제품이 아기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목욕용 온수 순환기, 라이터 등이다. 특별특정제품 이외의 특정제품은 등산용 로프, 가정용 압력솥/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석유등유기, 석유 온수 보일러, 석유난로 등이다.

○ 인증 가능 기관 :

(일본) 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所(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一般財団法人 電安全環境研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財団法人日本燃機器査協(재단법인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주)UL Japan, Bureau Veritas S.A. 재팬 주식회사, 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중국) Ningbo Zhongshengshan Product Inspection Co., Ltd.

○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act_outline.html)

5) PSTG 마크

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용 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4가지 품목(가스 순간 급탕기, 가스 온수 난방기, 가스스토브,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TG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TG마크가 요구되는 품목에는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 있는 가스 용품이 있으며, 구조, 사용조건,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특히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정가스용품'이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가스용품(반 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와 특정 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개방연소식 혹은 밀폐연소식 혹은 옥외형 가스순간 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달린 목욕탕용 보일러·가스레인지)이 있다.

○ 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gasji)

6) PSLPG 마크

액화석유가스(LPG)용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 석유가스기기'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LPG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 중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는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휴대용 가스버너(레인지), 반밀폐식 액화석유가스 순간 급탕기, 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욕실용 보일러 등),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 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기(일반가스풍로, 개방식 혹은 밀폐식 또는 옥외식 액화석유가스용 순간 온수기·스토브)가 있다.

○ 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 검사협회), 一般財団法人日本エルピ?ガス機器査協(재단법인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

○ 참고 : 일본경제산업성 석유화학 가스 사업법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

7) J-MOSS 마크

전기전자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JIS규격(JIS C 0950)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개 품목제품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는 경우 J-MOSS 마크(오렌지색)의 표시와 함께 함유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 품목인 PC, 유닛형 에어컨, TV 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가 있다.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표지 방법(JIS C 0950)에 따라 각 사업자가 표시해야 함. 특정 화학물질은 납[Pb]·수은[Hg]·카드

뮴[Cd]·육가 크롬[Cr (VI)]·폴리브롬화 비페닐[PBB]·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임.

○ 참고 :

-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
- J-MOSS마크 문의처: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리사이클추진과 상무정보정책국 정보통신 기기 부문 (전화번호 +81-3-3501-1511)

8) 가정용 계량기 마크

일본 계량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이 계량기 마크가 없는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대상품목은 체중계, 조리용 계량기다.

○ 인증가능기관 : 각 제조업자가 경제산업성이 제정한 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자기확인

○ 참고 : 경제산업성 계량기 관련 홈페이지 (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techno_infra/12_gaiyou_keiryoubi.html)

9) 검정인(印), 기준적합인

거래 증명 등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정인이 없는 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시에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검정 증인과 지정제조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 계량기를 제조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적합증인(검정증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대상품목은 업무용 계량기, 가스미터기, 수도 계량기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 미터기 등이다.

○ 인증가능기관 : 각 도도부현의 계량검정소

○ 참고 : 동경도 계량검정소 계량 검정에 관한 홈페이지 (www.shouhiseikatu.metro.tokyo.jp/keiryo/)

10) 특정 보건용 식품 마크

특정 보건용식품(조건부 특정보건식품 포함)은 식품이 지닌 보건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마다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정부로부터 표시허가를 받아야 한다. 섭취로 특정 보건 목적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 특정 보건용식품과, 특정 보건용식품에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조건부 특정 보건용식품이 있다.

대상품목은 특정 보건용 식품(신체의 생리학적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수치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거나, 장에 좋은 식품 등 특정한 보건효과가 있는 보건식품)이다.

○ 인증가능기관 : 특정 보건용식품으로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청 식품위생과, 소비자 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의 행정조직에 의한 다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절차의 한 단계로서 식품 성분분석에 관해서는 이하의 외부 시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立行政法人立健康・養研究所(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 一般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일반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 一般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査協(일반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등

○ 참고 : 소비자청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 홈페이지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

TBT

공업 분야의 일본 국가 공업규격 JIS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건축기준법,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약사법 분

야에서는 해외표준규격과 상관없이 법률이 강제적으로 JIS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업계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독자적으로 정한 '업계규격'이 존재해 일본시장진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로봇공업회 규격 : <https://www.jara.jp/various/standard/index.html>
- 공작기기공업회 규격 : <http://www.jmaa.or.jp/japan/kikaku.html>
- 전기공업회 규격 : <https://www.jema-net.or.jp/Japanese/standard/>
- 전선공업회 규격 : <https://www.jcma2.jp/jcs/index.html>
- 조명공업회 규격 : <https://www.jlma.or.jp/led/kitei.htm>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과 관련해서도 일본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외표준규격이 일본 내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 2014년 11월 약사법 대 개정으로, 법률명이 약사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고 개칭됐다. 의약품 의료기기법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각 분류는 심사기관 및 허가, 인가 등으로 국가로부터의 인증 방식이 다르다.

2021년 8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된 약사법('21년 후생노동성 법령 제15호)이 적용될 예정이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79749_00001.html)

- 일반의료기기(클래스1) : 체외진단용기기, X선 필름, 치과 기공용 용품 등, 리스크는 낮음. 신고가 필요. 자기인증
- 관리의료기기(클래스2) : MRI, 전자식혈압계,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장치, 치과용 합금 등. 리스크 비교적 낮음. 승인 또는 인증. 인증기관은 PMDA 또는 RCB
- 고도관리의료기기(클래스3) : 투석기, 인공 뼈, 관절, 인공호흡기. 리스크는 중간에서 높음. 승인 또는 인증. 인증기관은 PMDA 또는 RCB
- 고도관리의료기기(클래스4) :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리스크는 중간에서 높음. 승인. 인증기관은 PMDA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관세법】

최종개정일 : 2021년 3월 31일 공포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관세법이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절차에 관해 규정한 일본 법으로,

개별품목의 관세율 재검토, 품목분류 조정, 재난 등에 의한 납기 연장제도의 정비, 잠정세율 등의 적용기한 연장 등을 개정한 법률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 https://elaws.e-gov.go.jp/update/?update_date=2021%2F04%2F28
https://www.mof.go.jp/about_mof/bills/204diet/ka20210129y.htm

관세율 알아보는 법

분류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 중 자사의 품목이 해당되는 HS Code 2자리를 확인한다. 확인한 분류 품목에 링크된 세율 버튼을 클릭해, 중분류 소분류에 기재돼있는 상세내용에서 분류 품목과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를 확인 후, 관세를 확인한다.

○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

- (영문) : https://www.customs.go.jp/english/tariff/2021_4/index.htm
- (일문) : https://www.customs.go.jp/tariff/2021_4/index.htm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 Code 검색이 어려울 경우, 현행 HS Code 6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페이지에서도 품목별 해당 HS Code가 확인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한국 관세청 고객센터 :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일본의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일본의 주요 무역항은 5대 국제전략항만으로 불리는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항 등 일본 주요 거점과 연계된 무역항이 존재하며, 그 외 하카타, 시미즈, 기타큐슈 등 17개 국제거점항만이 존재한다. 각 대도시 항만을 통해 도착한 화물은 철도, 트럭 등 내륙 운송을 통해 일본 각지로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9년 기준 도쿄항 3,310,713TEU, 요코하마 2,300,385, 나고야 2,277,344TEU, 고베 1,918,429TEU, 오사카 1,536,697TEU로, 수도권(도쿄, 요코하마) 및 관서 지역(나고야, 고베, 오사카)을 중심으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 대한민국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한국과의 주요 교역항은 하카타, 오사카, 도쿄,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항 등으로, 일본의 주요 항만 이외에도 하카타항, 기타큐슈항 등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한 해상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무역항별 대한민국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9년 기준 하카타항 215,170TEU, 오사카항 192,246TEU, 도쿄 182,012TEU 등이며, 해상 운송을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2,426,467TEU로 일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14,790,483TEU) 중 16, 41%를 차지하고 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 일본의 주요 국제공항은 나리타, 관서, 도쿄(하네다), 주부(나고야) 등으로, 일본 주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로 공항이 존재하고 있어 국내 화물 운송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 일본의 항공을 통한 국제 화물 운송량은 2020년 기준 약 3,173,393t으로, 나리타, 관서, 도쿄, 주부 국제공항이 전체 항공 화물량의 약 9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한 화물량은 2020년 1,958,505t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최대 항공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물류 관련 기타 참고사항

최근 국제 물류비용은 코로나19 사태 및 세계적 물류난으로 인해 비용이 계속 상승 중으로, 컨테이너 부족 등에 따른 해상 운송이 감소하고 있지만, 항공을 통한 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기준 부산-도쿄 간 해상 평균 운임은 250 USD, 평균 유류할증료는 100 USD로(20ft, DRY, 일반 화물), 전월 동기 대비 운임은 2 USD, 유류할증료는 25 USD 정도 상승하였다.

또한, DHL 익스프레스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정기 요금은 평균 4.9% 정도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최근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부족에 더해 유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 해상/항공 물류비용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수입(납세)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필요에 따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관세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화물이 있을 경우, 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의 허가·승인증(식물방역법 등), 특혜원산지증명서(특혜관세를 받을 경우), 감면세명세서(감면세를 받을 경우) 등 세관에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법령 담당 부처에서 해당 법령에 의거한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인 통관 절차 ○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상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가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	---

통관 시 유의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밟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일본통운(日本通運)

주소	東京都港東新橋1丁目9番3
전화번호	+81-3-6251-1111
홈페이지	https://www.nittsu.co.jp/

○ 히타치물류(日立物流)

주소	東京都中央京橋2丁目9番2 日立物流ビル
전화번호	+81-3-6263-2800
홈페이지	http://www.hitachi-transportssystem.com/jp/

○ 킨테츠 익스프레스(近エクスプレス)

주소	東京都港南2-15-1 品川インターシティA棟24階
전화번호	+81-3-6863-6440
홈페이지	https://www.kwe.co.jp/

○ 세이노 로지스틱스(セイノロジスティックス)

주소	浜市西みなとみらい2丁目3番地1 クイーンズタワーA11階
전화번호	+81-45-682-5315
이메일	yokohama@logix.co.jp
홈페이지	http://www.logix.co.jp/

○ 미츠이창고(三井倉庫)

주소	東京都港海岸3丁目22番23 MSCセンタービル
전화번호	+81-3-6400-8011

이메일	yokohama@logix.co.jp
홈페이지	https://www.mitsui-soko.com/

○ 알프스물류(アルプス物流)

주소	神奈川県横浜市港北新羽町1756
전화번호	+81-45-531-4133
이메일	yokohama@logix.co.jp
홈페이지	https://www.alps-logistics.jp/index.html

○ 국제익스프레스(際エクスプレス)

주소	東京都港浜松町2丁目4番 1 世界貿易センタービル24階
전화번호	+81-3-5779-1180
이메일	japan@ka-exp.com
홈페이지	http://www.kokusaexpress.com/JP/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 일본의 대내 직접 투자 관리 제도

- 근거법규: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

- URL: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 정의: 하기 URL 참조 (외환법 Q&A 대내 직접투자·특정취득 편 1p)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 법 개정 (2020년 6월)

- URL: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 변경 내용 : 국가안전 보장의 강화 및 안전한 투자촉진을 위해 ①사전신고 면제 제도 도입(외국금융기관, 일반투자가 및 품목에 따라 적용) ②사전심사 대응을 강화(신고 기준 10%→1% 이상으로 엄격화)

- 규제방식 : 외환법은 안정보장 등의 관점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 투자가가 대내 직접 투자 등을 행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심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 의견을 듣고 투자내용의 변경 혹은 중지 권고·명령할 수 있다. (외환법 26조, 27조)

- (핵심업종) 사전심사를 통한 신고필요

- (핵심업종 외 지정업종) 사전신고 면제, 사후신고필요

- 심사주체 : 재무성 및 사업소관성청

- 대상 분야·업종: 국가의 안전·공공질서 등의 관점에서 무기·에너지 사업 등을 규제

- 벌칙 : 무신고 투자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100만 엔 초과 시, 목적물의 3배 이하)

○ 투자신고 절차

- 사전신고

- 사전신고는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하려는 날의 6개월 전 이내에, 직접투자 명령에 따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 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앞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외환법 27조 1항, 직접투자명령 3조 3항). 제출 부수는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수 +2통(직접투자명령 3조 3항).

- 대내 직접 투자의 사전신고는 재무 대신 및 사업소관 대신이 일본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심사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계산해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고한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할 수 없다(이 기간을 금지 기간이라 부름). 단, 그 금지 기간은 통상 2주간이다.(외환법 2조 2항, 직접투자명령 10조 2항).

- ICT기술을 활용한 행정수속 추진을 위해 일부 법개정 실시.

일본은행에 제출하는 대내 직접 투자 사전신고를 일본은행 외환법 수속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짐.

재무성령 제90호(2020.12.25)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hou_20201225.pdf

- 사후 보고

- 사후보고는 거래 혹은 행위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익월 15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까지) 직접투자 명령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 앞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외환법 55조 52항, 직접투자 명령 6조 31항). 또한 제출 부수는 재무대신+사업소관대신 수(직접투자 명령 6조 2항)로 준비해야 한다.

○ 외국투자가 정의

- ① 비거주자 개인
- 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에 주요 거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진 의결권 비율이 50%를 넘은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④ 조합 및 조합유사단체의 출자비율 50%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원 또는 관련 조합원의 과반수가 특정외국투자가인 경우
- ⑤ 법인 및 단체에서 (① 비거주자 개인이 임원 또는 대표권한 보유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

투자인센티브

○ 일본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우대조치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것은 없지만 외국인 투자기업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존재한다.

○ 「지방거점강화세제」에 의한 세금우대조치

- 대일 직접투자를 통해 도쿄권 이외의 지방도시(일부 대상 외 지역도 있음)에 일본 지사 및 연구소 등의 본사기능을 개설, 확충한 경우 또는 도쿄 23구에 본사기능을 가진 외자계 기업이 도쿄 23구로부터 본사기능을 도쿄권 이외의 지방도시로 이전한 경우 지방거점 강화 세제에 의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에 있어 본사기능을 개설, 확충한 경우

- 설비투자 감세(오피스 감세)
 - 대상 : 특정업무시설(본사기능)의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 취득가액 : 2,000만 엔 이상 (중소기업 1,000만 엔 이상)
 - 세제조치 : 특정업무시설의 취득가액에 대해 특별상각 15% 또는 세액공제 4%
- 고용촉진 세제
 - 고용자 증가 1명에 대해 최대 60만 엔을 세액 공제
 - 2018년도 이후 적용요건이 완화됨

○ 이외 외국인 투자기업도 대상이 되는 일본 내 인센티브 중에는 특구, 샌드박스제도(신기술 등 실증제도), 연구개발 세제, 외국으로부터 고도 인재 도입 우대조치, 재해부흥지원 관련 인센티브 등이 있다.

○ 한편 지방자치체의 경우 외자계 기업만 대상으로 한 우대조치가 존재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화된 인센티브 예

-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외자계기업등 보조금"
 - 거점설립에 드는 경비(시장조사비, 등기비용 등)을 2분의 1 이내 (200만 엔 이내) 보조
 - 임대개시로부터 12개월 이내 사무소 등의 임대료를 2분의 1 이내 (240만 엔 이내) 보조
 - 연구개발비(인건비, 외주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4분의 1 이내(200만 엔 이내) 보조
- 카나가와현 "셀렉트 카나가와 100 기업유치촉진 임대료 보조금"
 - 현내 재투자하는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연구소, 사무소 등의 임대료 보조(3분의 1, 600만 엔 상한)
- 치바현 "외국계기업 임대료 보조금"
 - 임대료 보조(2분의 1 × 3년간, 누계 300만 엔 상한),법인 시민세 감면(분의 1 × 3년간)

※ 그 외 상세 내용은 하기 URL 참조 'JETRO 외국·외국계 기업용 인센티브 등'을 참고: <https://www.jetro.go.jp/invest/support.html>

제한 및 금지(업종)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대상 업종으로는 하기 업종이 해당한다.

- 방위 관련(무기, 항공기 등)
- 군사 전용 가능한 화물 관련(수출관리 대상품의 제조업)
- 공익사업(전기, 수도, 방송 등) 등

※ 상세내용은 하기 URL 1p 외환법 Q&A 대내 직접 투자·특정취득 편 참고: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faq/data/t_naito.pdf

사전신고 대상 업종이 엄격화되어 지정 업종 중 핵심업종에 해당된 것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 사전심사 대상 업종(총 13분야) : 국가의 안전·공공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무기·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핵심 업종
- 핵심업종① (2020.06.07. 부 적용) :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군사전용 가능 제품, 사이버 보안, 전력, 가스, 통신, 수도, 철도, 석유업의 총 12개 분야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kanrenshiryou01_20200424.pdf

- 핵심업종② (2020.07.15. 부 적용) : 의약품·고도관리의료기기

<https://www.meti.go.jp/press/2020/06/20200615001/20200615001-1.pdf>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일본은 한국과 같은 외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산업단지 지역 등을 특별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전략특구 등은 존재한다. ○ 국가전략특구 -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전략 특별구역(이하, 국가전략특구)」이다. 해당 특구 한정으로 의료와 농업, 도시개발 등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 산업과 고용을 창출,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는 제도이며 부처 및 업계 단체 등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岩盤規制: 규제 혁신이 어려워 뚫기 어려운 돌과 같다는 의미)」를 타파하는 비장의 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근거법인 국가전략 특별구역법은 2013년 12월에 성립, 2014년 5월에 6구역(1차 지정)이 선정된 이후 2015년 8월 추가로 3구역(2차 지정), 2016년 1월에 3구역(3차 지정)을 거쳐 2021년 기준 지정된 지구는 총 10구역이다. (구역 추가 시 통합 등 때문에, 3차 지정지역 수의 단순 합계와 다르다.) - 규제개혁 분야로는 11개(도시재생, 창업, 외국 인재, 관광, 의료, 간호, 보육, 고용, 교육, 농림 수산업, 가까운 미래 기술샌드박스, 전국적 실현) 특구 중점 항목의 70개 사항,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41개 사항 등으로 2020년 12월 (2021년 발표) 기준 총 111개 사업이다. 규제개혁 사항 활용 사업(구역 계획)을 구역회의에서 결정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내각총리 대신이 인정하는 것이 기본 흐름으로, 2021년 6월 시점에서 규제개혁 사항 활용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총 359개에 이른다. ○ 기존의 특구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 일본에는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구조개혁특구」와 「종합특구」라는 기존의 특구가 존재하고 있다. 「구조개혁특구」는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나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활성화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시점 구조 개혁 특구 계획(인정된 것)은 1,368건 존재한다. - 한편 「종합특구」는 민주당 정권 때인 2011년에 시작된 제도로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기초하여 선진적 대처를 하는 구역에 정책자원을 집중시키는 제도이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힘을 향상시킬 목적의 「지역활성화종합특구」(41 지역)과 국제경쟁력을 갖고 산업을 육성할 목적의 「국제전략종합특구」(7 지역)의 2종류가 있다. - 기존의 특구와 국가전략특구의 차이는 기존의 특구는 지정 대상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가전략특구는 구역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특구는 규제 완화나 배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신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국가전략특구에서는 구역에서 나온 제안을 기반으로 정부 주도로 방침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총리가 의장이 되는 자문 회의가 설치된 것에도 국가 주도의 특구라는 색채를 반영하고 있다. * 참고 : 내각부 국제전략특구 홈페이지 (https://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index.html) ○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 - 2018년 5월, 일본정부가 개최한 「대일직접투자 추진회의」에서 지역특색을 내세운 지자체별 외투기업 유치전략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사무국:경제산업성, JETRO) 운영 실시를 결정하였다. - 이후, 구체적인 유치활동 지원을 프로그램 참가 각 지자체가 실시. 현재 삿포로(2020년 7월), 히가시 히로시마(2021년 3월)를 비롯한 총 30곳의 지자체가 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각 지자체가 특색이 있는 투자입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 참고 경제산업성 지역대상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지원 프로그램」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05002/20210305002.html)
-------------------------------	--

산업단지

○ 우츠노미야 니시 핵심 공업단지(宇都宮西中核工業地)

규모	142ha
------------------	--------------

위치	토치기현 토치기시, 카누마시(木市, 鹿沼市)
임차료	416~522엔/㎡/년(양도단가: 13,530~16,980엔/㎡, 조성 후 가격)
관할기관 및 연락처	- 토치기현 토지개발공사 사무부(木土地開公社業務部) - 전화: +81-28-622-6597 - 홈페이지: https://www.tochigi-tkk.or.jp/

○ 기타우라호 복합 단지

규모	192ha
위치	이바라키현 나메가다시 나가노에, 산와(行方市長野江, 三和)
임차료	임대 가능, 상담 필요(양도단가: 12,500~12,800엔/㎡, 조성 후 가격)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이바라키현 산업전략부 산업기반과(茨城産業略部産業基盤課) - 전화: +81-29-301-2752 - 홈페이지: http://www.pref.ibaraki.jp/kikaku/jisui/jisui.html

○ 시모노베 공업단지

규모	48ha
위치	시즈오카현 이와타시(磐田市)
임차료	임대 불가(양도단가: 100,000~120,000엔/평방, 조성 후 가격, 유효택지 면적)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이와타시 산업정책과(磐田市産業政策課) - 전화: +81-538-37-4904 - 홈페이지: http://www.city.iwata.shizuoka.jp/index.html

○ 미나미하라 공업단지

규모	59ha
위치	나가노현 카미이나군 미노와마치 나가조네(上伊那郡箕輪町中根)
임차료	상담 가능(양도단가: 8500엔/㎡)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미노와마치 산업진흥과(箕輪町産業振興課) - 전화: +81-265-79-3111 - 홈페이지: http://www.town.minowa.lg.jp/front/

○ 카즈사 아카데미아 파크(かずさアカデミアパーク)

규모	278ha
위치	치바현 키사라즈시 카스가카타마리(千葉木更津市かずさ鎌足)

임차료	○ 상담필요 - 분양단가 : 9,000엔/㎡~ - 임대단가 : 연간 470엔/㎡~481엔/㎡
관할기관 및 연락처	치바 상공노동기업입지와 기획·유치진출반(千葉商工部企業立地課企・誘致推進班) - 전화 : +81-43-223-2444 - 홈페이지 : https://www.pref.chiba.lg.jp/rich/ashisuto/sougoupamphlet.html
비고	교통 : 히가시 관동 자동차 타테야마선 키사라즈키타IC에서 5km (東東自動車道館山線「木更津北IC」から約5km)

○ 치토세 린쿠 공단 (千臨空工業地)

규모	약433.8ha
위치	치토세시 이즈미사와 (千市泉)
임차료	상담필요(분양 및 임대가능) - 9,000 엔/㎡(약 29,752 엔/평당)
관할기관 및 연락처	치토세시 산업진흥부 산업지원실 기업지흥과(千市産業振興部 産業支援室 企業振興課) - 전화 : +81- 123-42-0522 - 홈페이지 : https://www.chitose-yuuchi.jp/guide/guide_rinkuu.html
비고	교통 : 국도 36호선까지 7.1 km, 고속도로 신치토세 공항IC에2.6km 소요된 입지. 토마코마이 까지 24.2 km 소요됨

<자료원 : 일반재단법인 일본입지센터>

주요 지역별 여건

○ 시즈오카현

- 공장입지 건수: 제1위(9건), 공장입지 면적: 제3위(972,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1위(41건), 부지 면적: 제1위(554,000㎡)
- 인구 377만, 면적: 7,777㎢, GDP: 약 17조 444억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47,600엔
- 주요산업: 유송기기 및 기계, 전기 기계, 화학공학, 음료 및 식품, 종이/펄프
- 특징: 지리적으로 일본의 거의 중심에 위치, 반경 300km 권내에 수도권 및 나고야권, 킨키권이 있음. 국내 운송 대동맥인 신 토메이 고속도로가 정비되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보유. 또한, 야마하 발동기, 스즈키 자동차, 카와이 악기, 로랜드, 하마마츠 호토닉스, 스즈요, 야자키 창업 등 일본 및 세계 점유율 탑을 겨루는 제조업이 폭넓은 분야에서 거점을 설치.
- 참고자료: 시즈오카 현 기업입지 가이드
- <http://www.pref.shizuoka.jp/sangyou/sa-530/index.html>

○ 이바라키현

- 공장입지 건수: 제5위(46건), 공장입지 면적: 제5위(872,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2위 (24건), 부지 면적: 제3위 (482,000㎡)
- 인구: 297만, 면적: 6,097㎢, GDP: 약 13조 567억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18,200엔
- 특징: 도쿄 도심이 30~150km로 대 소비지이자 본사 거점이 모이는 수도권에 대해 절호의 위치이며, 저렴한 지대가 큰 매력. 교통 인 프라도 충실해 현을 남북으로 달리는 조반 자동차도, 동서로 달리는 북관동 자동차도, 수도권중앙연결자동차도, 수도권 3번째 공항인 이바라키 공항, 철도도 츄쿠바 익스프레스 및 JR 조반선 등이 있음.
- 참고 자료: 이바라키의 공업단지
- <https://www.indus.pref.ibaraki.jp/index.html>

○ 나가노현

- 공장입지 건수: 제7위(39건), 공장입지 면적: 제12위(452,000㎡)
- 외국계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3위(21건), 부지 면적: 제4위 (315,000㎡)
- 인구: 215만, 면적: 13,561㎢, GDP: 8조 2,723억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22,000엔
- 주요 산업: 전기·전자, 정보, 기계, 식품, 관광제품, 관광
- 참고자료: 나가노 현 산업입지 가이드
- <http://www.nagano-ritti-navi.jp/>

○ 토치기현

- 공장입지 건수: 제8위(38건), 공장입지 면적: 제4위(967,000㎡)
- 국제 기업 공장입지 건수: 제4위(18건), 부지 면적: 제2위(488,000㎡)
- 인구: 179만, 면적: 6,097㎢, GDP: 약 9조 1,513억 엔 공업용 땅 가격(1㎡당, 평방): 15,700엔
- 주요 산업: 자동차/항공우주, 의료 기계, 광학, 환경, 식품
- 참고자료: 기업입지에 관한 안내
- <http://www.pref.tochigi.lg.jp/kogyo/>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9358.8	9355.59	9255.89	14552.4	10253.7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155937	164588	143094	226648	11570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876	246	1,380,547	998	1,300,089
2020	640	114	1,875,050	791	1,623,479
2021	314	53	495,360	364	424,373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46	1	46
제조업	282	49	95,956	354	65,82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	1	112,329	2	110,622
건설업	4	1	7,473	16	5,713
도매 및 소매업	178	63	65,191	215	61,775
운수 및 창고업	11	6	2,790	8	1,049
숙박 및 음식점업	34	14	17,680	31	17,523
정보통신업	127	36	86,776	133	81,903
금융 및 보험업	22	17	780,704	27	748,146
부동산업	97	24	143,614	99	146,2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5	16	13,056	33	9,28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33	5	9,638	32	9,293

교육 서비스업	6	3	5,756	8	4,2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162	1	1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6	38,775	32	37,67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3	601	6	54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24	17	308,315	307	75,54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45	1	600
건설업	4	3	1,415	14	2,600
도매 및 소매업	114	31	75,852	149	57,504
운수 및 창고업	8	3	4,017	4	2,883
숙박 및 음식점업	21	3	4,333	21	4,184
정보통신업	124	23	135,137	131	134,295
금융 및 보험업	17	9	358,383	23	358,168
부동산업	51	15	942,322	56	958,0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7	20,276	36	15,86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	1	2,987	18	1,950
교육 서비스업	2	0	14,294	2	6,6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	150	2	1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1	7,003	22	4,5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0	421	5	42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16	6	27,409	151	15,15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921	2	541
건설업	1	0	661	3	302
도매 및 소매업	54	14	18,143	58	13,654
운수 및 창고업	4	1	2,023	4	2,023
숙박 및 음식점업	6	2	1,004	6	980
정보통신업	66	12	23,296	68	19,539
금융 및 보험업	12	8	289,475	13	299,308
부동산업	12	1	101,975	12	48,83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	4	15,401	20	14,57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11	1	4,516	12	3,089
교육 서비스업	3	1	9,280	3	5,148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1	2	1,116	10	1,09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2	0	140	2	14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SK하이닉스재팬

진출연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반도체
모기업명	SK하이닉스

○ 포스코재팬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철강, 금속, 화학 등
모기업명	(주)포스코

○ 라인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IT서비스
취급분야	IT솔루션, 서비스
모기업명	NHN(주)

○ 대한항공

진출연도	196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 물류
취급분야	항공운송업
모기업명	대한항공

○ 삼성전자재팬(주)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CJ재팬(주)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가공식품 등
모기업명	CJ(주)

○ LG화학재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종합화학
취급분야	석유화학(NCC.고무, 특수수지, PVC 등), 정보전자재료(편광판, 배터리 등)
모기업명	LG화학

○ 셀트리온헬스케어재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바이오헬스케어
취급분야	바이오시밀러
모기업명	셀트리온헬스케어

○ 현대머티리얼재팬(주)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법인
업종	무역
취급분야	철강제품, 철강원재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세아베스틸 일본사무소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철강
취급분야	특수강 전반
모기업명	세아베스틸

○ (주)삼양재팬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법인
업종	식품
취급분야	즉석라면
모기업명	삼양식품

<자료원 : 보도자료, 삼양재팬 홈페이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 [현지 법인(자회사)]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외국 기업이 출자자가 되어 일본에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기에 자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회사의 활동으로 생긴 채권 채무는 그대로 자회사에 귀속되며, 외국 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회사 유형에서 설립할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회사법상 주식회사(KK), 유한책임회사(LLC),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는 4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출자자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에서 영업활동을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이사는 경영을 책임진다. 주식회사는 전 주주에 의해 구성되는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결의하는 이사회,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있다.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제한을 둔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사회설치가 임의로 되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의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으며 회계참여라는 기관이 신설되어 이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합동회사(일본판 LLC)

원칙으로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며,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의 배분이 가능하여 내부자치가 자유로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로 자본금이 소액으로 수속도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합자회사와 같이 설립과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그 책임도 무한책임이 되므로, 설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

□ [지점]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지점은 일본에 설치된 외국 기업의 영업소라고 볼 수 있다. 주재원 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하기에,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점으로서 가장 간편한 것이 지점이다. 지점으로서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지점 대표자를 정해서 필요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지점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도 가능하다. '현지 법인'도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거점이라는 점이 지점과 같지만, 다른 점은 지점은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외국 회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의 활동에 의해 생긴 채권 채무는 결국 외국 기업에 직접 귀속된다. 비영리 법인, 금융기관 등 법인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단기 철수를 전제로 일본 기업이 코스트 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지점설치절차

- (1)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지점장)를 선임
- (2) 영업소의 설치
- (3) 등기 신청

영업소를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일본 내 대표자의 일본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하기의 등기사항과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한다.

- 등기에 필요한 사항
 - 외국회사의 설립 준거법
 - 일본 내 대표자 성명 및 일본 내 주소
 - 설립준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
 - 일본 내 공고 방법
 - 한국본사의 설립일자 등
- 등기 시의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일본 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회사의 정관 외에 외국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위의 등기사항 등에 대한 증명문서로서 선서공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관할관청 또는 일본 내 주일 영사관의 영사 또는 그 외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여기서 관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등 한국에서의 공증인 등을 말하며 선서공술은 한국본사의 대표이사 또는 일본 내 대표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에 있는 주일 한국영사관에서 선서공술을 하는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서공술서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 한국본사의 등기부등본
 - 한국본사의 인감증명서
 - 한국본사의 의사록
 - 일본의 대표자의 임명장 등

선서공술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법무국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자 등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에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신청하면 된다. 지점설립 이후에 등기사항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는 등 본사의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지점설치에 드는 비용
 - 등록면허세 : 90,000엔
 - 그 외 기타비용(회사 도장 등) : 10,000~20,000엔

2) 지점 개설 후 신고 사항

지점 등기 후에는 각종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대상은 세무서, 광역지자체(都道府 -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 세사무소, 기초지자체(市町村 - 구, 읍면리에 해당)의 담당부서,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등이 있다. 각각 제출 기간이 있

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

연락사무소

□ [주재원 사무소]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된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 등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 등기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임차가 불가능하므로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 이들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본격 사업 전개 전에 시운전·시장조사 등 제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설치절차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회사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무소의 규모(예를 들어 사무실이 일본대표자의 거주지 등)등은 대표자의 체류자격과 밀접하게 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표자가 일본에 와서 사무실을 정한다. 그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비자(사증)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주거지의 신고,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 설치 후 신고사항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주재원사무소에서 일하는 주재원과 일본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지직원의 급여에 관해서 원천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의 경제 대국임과 동시에 달러 및 유로화에 더불어 엔화도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어 투자환경이 매우 안정적이며, 국가부도의 위험이 낮은 편이다. 일본의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 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21년 19.10으로 주요 선진국만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수치가 낮을수록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계 혜택 및 스타트업 비자 지원 등 외국기업의 일본 투자 진출 시 다양한 제도적 ·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기관인 A.T.Kearney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 지수(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FDI 신뢰 지수는 3.0점 만점에 1.98점을 기록해 일본의 FDI 투자 매력도는 조사 대상 25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현지법인(자회사): 외국기업이 출자자로 일본에 독립 법인(자회사)을 설립할 경우, 일본 내 자회사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는 그대로 자회사에 귀속되며, 외국기업은 법률상 규정된 출자자로서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적에 상관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일본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일본인이나 적절한 체류자격(『투자 · 경영』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이사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자본을 취득해 주주 또는 사원이 된 경우에는 외국인 및 외국무역법 등에 의거, 외국자본규제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및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지점(외국 회사): 일본 내 지점 설립 시 정관을 새로 만들어 인증받을 필요가 없고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으나, 일본 내 대표자와 영업소는 따로 정해 등기해야 한다. 또한 일본 내 대표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일본 내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점 등기 후에는 각종 관공서(세무서, 광역 지자체 세무서, 노동기준 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등)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각각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지점으로써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내의 기관 운영이나 회계 처리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 본사의 사업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지점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개설이나 부동산 임대 가능하나, 최근 현지 3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지점 명의 통장개설을 불허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연락사무소(주재원 사무소): 주재원 사무소는 일본 회사법상 법인의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이나 결산공고 등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일본 국내의 거래처 기업과의 계약 업무나 대금 지불 시 주재원 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계약 및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는 부동산 임대 계약이 불가하므로 외국기업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 은행 통장개설 또한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개설이 불가하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3) 분쟁 해결 현재 일본무역투자진흥기구(JETRO)에서 일본 내 거점설립 또는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창구인 대일 투자 · 비즈니스 지원센터(IBSC)를 일본 주요 6개 지역(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후쿠오카)에서 운영하고 있다. 투자 진출에 필요한 정보 문의 및 진출 시 애로사항 등은 JETRO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JETRO 홈페이지 문의처 : https://www.jetro.go.jp/form5/pub/jab/investjapan 전화 문의처 · 법인 설립 및 사업 확대 관련 상담 : +81-3-3582-4684 · 그 외 대일 투자 관련 상담 문의 : +81-3-3582-5571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자본금: 1엔 이상
- 출자자 수: 1명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지분의 양도: 원칙은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함' 같은 취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요한 임원 수: 최소 1명(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
- 법정 임원 임기: 10년 이내
- 정시 주주(사원) 총회: 원칙 매년 개최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가능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합동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 손익분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 이익에 대한 과세: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해 과세

유한책임회사

- 합동회사(일본형 LLC)
 - 자본금: 1엔 이상
 - 출자자 수: 1명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지분 양도: 원칙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같은 취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요한 임원 수: 법정 임원 규정 없음. 원칙상, 사원 전원이 업무집행자가 되지만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법정 임원 임기: 임기 없음
 - 정시 주주(사원)총회: 개최 필요 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불가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가능
 - 손익분배: 정관으로 출자비율과 다른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이익에 대한 과세: 합동 회사의 이익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대해 과세

개인사업자

- 자격: 재류 자격에 문제가 없고,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개인사업주로서 사업이 가능하다.
- 자본금: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설립절차: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 개업 신고서'(개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개인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 12월 31일을 결산 일자로서 수지결산을 정리해서 익년 3월 15일까지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그 외 세금: 일반적으로 소득세 외에 개인 주민세, 개인 사업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참고사항: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초과 누진과세로 계산되므로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상승. 한편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일정하므로 소득이 어느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 형태가 유리하다.

지점

- 자본금: 기준 없음.
- 회사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한도액 없음.
- 출자지분 양도: 출자지분 없음.
- 필요한 임원 수: 일본에서의 대표자 1명 이상
- 법정 임원 임기: 임기 없음.
- 정시 주주(사원) 총회: 개최 필요 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출자지분 없음.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불가. 지점 폐쇄 및 모든 일본에 있는 대표자의 퇴임 등기와 주식회사 설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시바파크 종합법률사무소(芝パーク合法律事務所)

전화번호	+81-3-6435-6441
주소	東京都港芝公園1-7-9 芝公園高ビル
홈페이지	https://shibaparklaw.com/
이메일	splo@shibapark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 시티유와 법률사무소(シティユワ法律事務所)

전화번호	+81-3-6212-5500
주소	東京都千代田丸の2-2-2 丸の三井ビル7階
홈페이지	http://www.city-yuwa.com/index.html
이메일	splo@shibapark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 변호사 법인 오르비스(弁護士法人オルビス)

전화번호	+81-3-5425-4488
주소	東京都港虎ノ門3丁目20番4 虎ノ門鈴木ビル6階
홈페이지	http://www.legal.ne.jp/
이메일	splo@shibapark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 이준범 공인회계사 사무소(李俊範公認計士事務所)

전화번호	+81-3-3288-9291
주소	東京都千代田町3-3-8 丸町ビル3F
홈페이지	http://www.lee-cpa.com/index.html
이메일	info@lee-cp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 SCS 국제 컨설팅(SCS際コンサルティング)

전화번호	+81-3-6441-3248
------	-----------------

주소	東京都港虎ノ門2-2-5 共同通信館4階
홈페이지	http://www.scsglobal.co.jp/
이메일	contact_jpn@scsglobal.co.jp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 노조미법률사무소(のぞみ合法律事務所)

전화번호	+81-3-3261-1615
주소	東京都千代田町3-2 ヒューリック町ビル8階
홈페이지	https://www.nozomisogo.gr.jp/
이메일	contact_jpn@scsglobal.co.jp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일본의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대외 거래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외 거래의 정상적인 발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화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외환법은 1949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으로서 제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일본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대외거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였다.

이후 1980년 개정에 따라 대외거래를 원칙 자유화하였으며, 1998년 개정을 통해 사전 허가·신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외국환을공인은행제도, 환전상거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우며 신속한 대내외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발맞추어 대외거래환경을 정비해왔다.

2001년 미국의 테러발생 이후, 국제사회에 있어 테러 자금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2002년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적용하였다.

2017년에는 안전보장을 위해 대내 직접투자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대내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대내 직접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요분야 기업의 주식 매입 시(1% 이상)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내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외환 규제

외환법(외환 및 외국 무역법)상, 무역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3,000만 엔이 넘는 금액의 송금 및 수령의 경우 일본은행 앞으로 "지불 또는 수령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일본은행에 사전 신청 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보고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금융기관에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앞으로 제출된다.).

외국 투자자가 일본기업(155개 지정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이 된다면 일본은행을 통해 사전신고를 시행해야 한다.(신고 후 30일간 매입이 불가)

특히, 그 중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업종인 경우는 사전신고 시 각 관할관청의 심사가 시행되며, 심사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핵심업종: 2020년 6월에 12개 업종을 지정, 7월 이후 코로나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추가되어 현재 총 14개가 핵심업종으로 지정됨

- 외환법에 관한 수속절차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index.htm/>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10.10 엔(2021년 6월 16일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53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614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8
비고	신졸 임금(초임) (2021년 6월 기준 최신자료) - 대학 졸업자 : 226.0천엔 - 고등학교 졸업자 : 177.7천엔 * 참고URL : https://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z2020/dl/09.pdf 임금은 일정한 기일에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그 전액이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24조). 다만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시간당 최저임금액 (2020년(2021년 6월 기준 최신)) * 참고URL :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302000/000662334.pdf(2020.10월 기준) · 전국평균 902엔 · 도쿄도 1,013엔 · 카나가와현 1,012엔 · 치바현 925엔 · 사이타마현 928엔 · 오사카부 964엔 · 교토부 909엔 · 홋카이도 861엔 · 미야기현 825엔 · 아이치현 927엔 · 히로시마현 871엔 · 효고현 900엔 · 후쿠오카현 842엔 정사원(무기한고용 풀타임 근로자)과 비정규고용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기한부 고용 근로자·파견 근로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등 대우(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 복리후생 등)를 없애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동일근로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대기업에 적용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됨. 이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하여 불합리한 차등대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자료원 : 후생노동성〉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근로조건 명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고용계약을 맺는다. 노동 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무효이며, 고용자는 다음의 조건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시간제 근로자 및 기간제 고용 근로자도 이에 해당함(파트타임 노동법 6조) 2020년 4월(중소기업 2021년 4월)부로 적용

- 계약 기간(기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 사유)
-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갱신의 여부와 갱신의 기준
- 근무의 장소와 종사하는 업무 내용
- 출퇴근 시각, 초과근로의 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
- 임금의 결정, 계산 및 지불에 대한 내용
-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사유 포함)

2) 고용계약 기간

고용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사업 완료)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이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단, 고용계약의 기간의 첫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근로자는 고용자에게 언제든지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통산하여 5년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바뀌게 된다(이른바 '무기 전환률'). 또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넘어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3) 시험채용 기간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 그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을 판별하기 위한 인턴 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한다.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이나 그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 그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은 것이 돼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배치 및 전근

일본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과 전근이 빈번히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자는 업무의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 규정

일본은 노동기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 40시간까지, 동조 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까지로 노동시간 상한(법정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시간 외 노동협정 (노동기준법 제36조) 등을 이용하면 사실상 노동시간에 상한은 없었다. 그러나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연장 근로 시간, 과도한 잔업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과로사,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논의가 심화, 2018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의결,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휴일 노동은 포함하지 않은)의 상한은 원칙 월 45시간, 연 360시간이 되었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도 "시간 외 노동은 720시간 이내", "시간 외 노동과 휴일노동은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한다. 따라서 월 45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한 것은 연 6개월까지라는 점 등이 포인트다. 최근에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블랙기업"이라 불러 대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후생노동성은 "노동기준관계법령위반에 관한 공표사항"이란 이름으로 매년 블랙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게재기업은 약 1,500개사를 넘는다.

한편 2018년 6월에 성립한 "일하는 방식개혁 관련법" 중에서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 "특정 고도전문업무, 성과형 노동제", 통칭 "고도 프로페셔널제도"라는 것이 있다.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보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제도로 착안해 구체적으로는 연수 1,075만엔 이상으로 고도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금융상품 개발업무, 금융상품 거래업무, 애널리스트 업무, 컨설턴트 업무, 연구개발 업무 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현재 제도 개시로부터 3개월간 약 300명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도입기업 수는 4개에 그쳤다. 대상업무 및 연수 등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

2) 법정 노동시간

노동기준법(1947년 4월 7일 법률 49호) 제32조(노동시간)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이다. 그러나 특례사업장 예외, 특종 직종에 대한 예외, 변형 근로 시간제를 도입해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특수 직종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의 다음 업종은 주간 44시간까지 법정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특례사업장 예외).

- 상업: 도매, 소매, 이·미용, 창고, 주차장·부동산 관리, 출판업(단 인쇄 부문 제외)
- 영화 연극업: 영화 촬영, 연극, 그 외 흥업 등 (단 영화 작성, 비디오 제작 제외)
- 보건위생업: 병원, 진료소, 치과의원, 탁아소, 양로원, 목욕탕(단 개인실 목욕탕 제외) 등
- 接客 오락업: 여관, 음식점, 골프장, 공원 유원지 등

또한 특정 직종에 대한 예외로, 농업, 축산업, 수산업 종사자, 관리감독자, 기밀사무 취급자, 일직 근무자 등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형 근로 시간제는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주당 노동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법정 노동시간으로 보는 제도이다.

휴가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출근하고 전 노동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노동일 기준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단, 근로자의 유급휴가 신청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그 시기를 변경을 시킬 수 있다. 근속 연수와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날짜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 근속 연수 : 부여 날짜
- 6개월 : 10일
- 1년 6개월 : 11일
- 2년 6개월 : 12일
- 3년 6개월 : 14일
- 4년 6개월 : 16일
- 5년 6개월 : 18일
- 6년 6개월 이상 : 20일

연차 유급휴가의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 그해에 취득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까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월분과 신규 취득한 유급휴가를 합계해 최대 40일(근속 연수가 7년 6개월 이상의 사람)까지의 유급휴가의 취득이 가능하다.

연휴 부여 일수가 10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휴가 중 연 5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계절을 지정하여 연휴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최소한 연 5일의 유급휴가는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노동기준법 제39조 제7항).

또한 연차 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노사협정을 체결할 경우 1년에 5일을 한도로 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서는 상기의 유급휴가와와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결혼, 근친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등에 있어서는 상기와는 별도로 며칠 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일본의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이다.

근무일수가 적고 1주간의 근무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의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또한 사용자는 유급휴가 이외에 근로자의 출산, 육아, 개호(부모의 간병, 수발 등을 의미함) 등에 맞추어 법정 휴가와 휴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고

1) 해고절차와 조건

해고에는 보통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의 종류가 있다. 기간의 규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가 사직(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하는 경우는, 2주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취업 규칙 등에 퇴직 예정일의 2주일 이상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을 경우는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1개월 이내이며, 1개월 이상의 사전 통보 의무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해고(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퇴직 의사 표시를 하는 것에 의해서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것)는 몇 가지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노동계약법 제16조).

【정리해고】

회사 경영의 악화를 이유로 인원 정리를 위해 행해지는 해고를 말한다.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다수의 재판례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고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① 인원 감축의 필요성
- ② 해고 회피의 노력
- ③ 피해고자 선정의 합리성
- ④ 해고 절차의 타당성

【징계해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의 하나로서 행해지는 해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과 사회 통념상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실제의 해고에는 미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절차가 필요하다.

2)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가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미리 취업 규칙 등에서 가능한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해고의 유효성 판단이 매우 어려우므로 노동법 전문가(변호사, 사회보험 노무사 등) 등에게 사전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정리해고(기업경영 악화 때문에 실시하는 해고)의 경우는 많은 판례가 있으며 이하 4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해고의 필요성 : 기업이 인원 정리를 해야 할 만큼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해고를 막으려는 노력: 배치전환, 희망 퇴직자의 모집 등 해고를 막기 위해 경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인선의 타당성: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 해고 절차의 타당성: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3)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해고,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노동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 업무를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 여성 노동자가 산전 6주간(2인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는 14주간), 산후 8주간 쉬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가 제한된다.

4) 해고 수속

고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고 의사를 표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와 동시에 30일분의 임금(예고 급여)을 지불해야만 한다(노동기준법 제20조 제1항). 단, 아래의 경우와 같이 관할 노동 기준 감독 소장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고 예고나 예고 급여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 근로자의 책임으로 해고돼도 어쩔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내에서의 절도, 횡령, 상해 등 형사상의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 현저한 풍기문란으로 직장 규율을 어겨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 고용 시 경력을 사칭했을 경우
- 2주 이상 정당한 이유 없고 무단결근해, 출근의 독촉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해, 몇 차례에 주의를 받아도 고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모종의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퇴직에 대해 기업이 근속연수, 퇴직 이유 등에 따라 일시적 지불을 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를 부과받지 않고 동시에 급여와 비교하여 세제상 우대도 받고 있다. 게다가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채운 다음, 퇴직금의 적립으로서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손금 경리도 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 건강보험·개호보험제도

-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됨)

-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 다만, 단시간 노동자에 한해서는 노동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된다. 다만,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룩셈부르크, 헝가리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자국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서의 가입이 면제된다.

- 피부양자: 피보험자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손자, 형제도 이 보험의 지급 대상이 된다.

- 개호(간호)보험: 40세 이상 65세 미만, 1.79%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사업주와 피보험자 절반씩 부담)

- 치료비: 보험 적용 의료기관(건강보험 적용 의료기관. 일본 내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함) 치료에 필요로 한 비용 중 7할은 보험자로부터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되고, 3할은 피보험자가 부담. 초과 의료에도 적용된다.

- 해외 치료비: 해외 체제 중 또는 여행 중에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귀국 후 신청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일본의 의료비로 환산한 금액의 7할이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지급됨. 외국인인 피보험자가 모국, 그 외의 나라에서 의료혜택을 받았을 경우도 적용된다.

- 고액 치료비: 피보험자가 동일한 달(역월)에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불한 일부 부담금의 액수 등의 금액이 일정액을 넘었을 때는 고액 치료비로 지급된다.
- 보험료: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 밝히고 있는 건강보험 일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 월 금액(상한 139만 엔) 및 표준 상여액 수(연간 합계 상한 573만 엔)의 9.87%(도쿄 기준), 개호 보험료율은 1.79%로 피보험자 및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2020년 4월 부터 적용). 조합 관장 건강보험은 보험료율의 설정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 신고: 보험 관계 성립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고해야 한다.
- o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건강보험)
 - 적용: 상기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주거지의 시·구·읍·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지급 기준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과 동일
 - 보험료: 일정한 범위에서 각 지역에 의해 결정된 보험료

일본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적인 건강(의료)보험제도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일본에 부임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 지급 내용이 일본의 건강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 o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 근로자에 적용한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해서는 주간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고용할 예정인 자에 한하며, 해외 본사 등으로부터의 부임자는 가입이 면제된다.
- o 지급 :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했을 때 전직의 이유, 피보험자인 가입 기간, 연령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기간의 실업급여금이 지급된다. 또한, 그 외 고용안정과 관계되는 각종의 지급도 시행하고 있다.
- o 보험료 : 노동자 임금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0.9%를 적용, 고용주가 0.6%, 피보험자가 0.3% 부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o 신고 :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공직업안정소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

- o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강제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사업주 등도 신청에 따라 특별 가입이 가능하다.
- o 지급 :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통근 중의 재해에 의해 생긴 부상·질병·상해·사망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다.
- o 보험료 : 원칙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최고 8.8%(금속광업 등)에서 최저 0.25%(금융업 등)까지 보험료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다.
- o 신고 : 보험 관계 성립이 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노동 기준 감독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 o 후생연금보험의 제도
 - 적용 사업소: 모든 법인 및 상시 5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개인 사업소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이다.(외국 기업의 일본 지점·영업소는 법인으로 취급되며, 주재원 사무소는 개인 사업소로 취급)
 - 피보험자: 원칙적으로 모든 종업원(70세 이상 제외)이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상시 노동 시간이 일반 종업원의 3/4 이상인 사람은 피보험자에 해당(종업원수 501명 이상의 법인/사무소)하며, 해외 본사로부터의 부임자, 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자 등도 피보험자가 된다.
 - 노령 연금: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과 보험료 면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65세 이상일 경우, 지불한 보험료와 지

불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이 지급된다.

- 장애 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장애의 정도, 지불한 보험료의 액수,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 등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또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 유족 연금: 피보험자, 상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가운데 중증의 장애인 등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 요율과 부담: 피보험자의 표준 보수에 월액(상한 65만 엔) 및 상여 액수(상한 150만 엔)의 18.3%를 피보험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한다.

- 연금 협정: 현재, 일본은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퀘벡주 제외),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및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와 각각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나라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 연금 사무소 신고로 일본 연금보험제도 가입이 면제되고 있다.. 슬로바키아, 중국, 이탈리아 및 필리핀은 발효 예정으로, 그 외 스웨덴과 터키는 정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 탈퇴 일시금: 외국인이 연금을 수취하지 않고 귀국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지불한 기간과 지불한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반환된다.

- 신고: 보험 관계가 성립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사회보험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적용 대상자 이외의 경우(국민연금)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상가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매달 보험료는 정액(2021년도 기준: 16,610엔)으로 소득 상황에 따라 면제, 일부 면제, 납부유예 등이 가능하다. 노령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생연금보험과 같이 탈퇴 일시금이라는 제도도 있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일본에서 법인활동에 따른 과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있으며, 법인 3세라 불리는 법인(소득)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의 3개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이외에 지방 법인세, 지방 소비세 등이 존재한다.

한편, 지방법인특별세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폐지됐다. 단, 법인세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에 변동이 있는바,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1) [국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는 그 외 회사가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 법인세는 2014년에 공포된 지방법인세법에 따라 창설된 세금으로 명칭만 보면 지방세라 착각하기 쉽지만 국세다. 모두 회사의 수익 상황이 적자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 국세: 법인(소득)세, 지방 법인세

- 법인세: $[\text{과세소득금액}] \times [\text{세율}] = [\text{법인 세액}]$

· 과세소득금액은 「이익금 - 손해금」으로 계산한다. 단, 회계상의 이익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세율은 자본금 1억 엔 이하로 과세소득 800만 엔 이하는 세율 15%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 800만 엔 초과는 세율 23.2% (2019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가 대상)

- 지방 법인세: $[\text{법인 세액}] \times [\text{세율}] = \text{지방 법인 세액}$

· 세율은 4.4% (2019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과세사업연도에 대해서는 10.3%)

법인주민세는 「법인도도부현민세」와 「법인이읍촌민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도도부현민세」와 「법인이읍촌민세」에 각각 「법인세할」과 「균등할」을 지불하게 된다(법인주민세 = 법인세할 + 균등할). 「법인세할」은 법인세에 따라 일정 세액이 과세되는 것이고, 한 편 「균등할」은 이익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액이 부과(자본금·종업원 수에 기반)된다.

2) [지방세] 법인주민세

- 법인도도부현민세(= 법인세할 + 균등할): $[\text{법인세액}] \times [\text{세율}] = \text{지방도도부현민세액(법인세 할분)}$

· 법인세할의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은 도쿄도(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 세율 <표준세율>)의 경우 7.0%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사업연도 대상) 도쿄도의 경우, 구민세(하기 법인이읍촌민세에 해당)도 포함해 도가 과세하고 있어, 계산은 일원화된다.

· 균등할분은 자본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도쿄도의 경우 자본금 1,000만 엔 이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경우 7만 엔이 부과된다.

- 법인이읍촌민세(= 법인세할 + 균등할): $[\text{법인세액}] \times [\text{세율}] = \text{지방법인세액}$

3) [지방세] 법인 사업세

- $[\text{과세소득금액}] \times [\text{세율}] = \text{사업세액}$

· 세율은 도쿄도의 경우 자본금 400만 엔 이하로 과세소득 400만 엔 이하는 세율 3.5% (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사업연도 대상),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는 세율 5.3%, 800만 엔 초과는 세율 7.0%를 부과한다.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중 개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에 대해 소득 원천지를 따지지 않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아니며, 과거 10년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 혹은 체재한 자는 비영주자로 본다. 비영주자의 과세범위는 거주자의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지불당하거나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고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소득금액의 구분: 세율 5%
- 1,950,000엔 초과~3,300,000엔 이하: 10%
- 3,300,000엔 초과~6,950,000엔 이하: 20%
- 6,950,000엔 초과~9,000,000엔 이하: 23%
- 9,000,000엔 초과~18,000,000엔 이하: 33%
- 18,000,000엔 초과~40,000,000엔 이하: 40%
- 40,000,000엔 초과: 45%

부가가치세

일본 국내 거래 및 수입거래(한국기업들의 일본으로의 수출)에 대해서, 비과세인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소비세가 부과되며,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10%(지방소비세 2.2% 포함)로 인상되었다.

* 단,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음료,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 경감세율 8% 적용

○ 소비세 적용 거래

- 일본 국내 거래 : 일본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부, 역무 제공
- 수입거래(한국기업들의 일본으로의 수출): 보세지역에서 거래된 외국화물

○ 소비세 비적용 거래

- 비과세 :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분야
- 면세 : 수출거래 및 국제 통신, 국제운송 등의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상자권, 영업비밀, 상호, 상품 표시, 상품 형태가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심사관에 의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 구체적인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일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구성에 따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외에도 소리 기타 정령으로 규정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나,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저작권은 언어 저작물, 음악 저작물, 무용 저작물, 미술 저작물, 지도, 도형 저작물,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건축 저작물,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대표적인 최근 동향으로, 상표 출원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까지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을 6.5개월로 함으로써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8개월이 될 수 있도록 상표심사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일본 지식재산권 동향

1. 특허·실용신안 분야

(1) COVID-19 지속으로 인한 출원 감소

2020년 4월 첫번째 긴급 사태 발령으로 급격하게 경제 활동이 저하되면서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4, 5월에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 정도 감소했다. 그 후 긴급 사태 해제를 거쳐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결국 제2파가 발생한 2020년 8월 이후에는 제1파 때의 감소 분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6.4%(잠정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이른바 리만 쇼크 직후인 2009년의 -10.9% 이래로 가장 큰 하락 폭에 해당한다.

(2) 침해 소송에서 제3자(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도입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변론주의(당사자 책임)를 완화하여 제3자 전문가(법조계, 학계,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에도 반영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3) 권리자가 특허를 정정·포기할 때에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 삭제

특허에 있어 다수의 실시권자(라이선스)가 존재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특허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 내용을 정정 또는 포기할 때의 통상실시권자 동의 요건이 삭제되었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동일

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2. 상표 분야

(1) 상표 출원량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상표 심사 기간 증가

일본에서는 2017년경부터 상표 출원이 크게 늘어나, 개별 심사를 착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길어졌다. 이는 일본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신규 보충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이후로는, 그 전에 비해 연간 출원 수가 20%가량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첫번째 심사 결과가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도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2) 개인 수입의 브랜드 모방품 등에 대한 세관 제재 시행

전자 상거래 거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방품 및 해적판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해적판인 경우, 개인 사용이라는 이유에서 현행법으로는 모방품 등을 판매한 해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해외의 모방품 및 해적판 등을 판매하는 자가 일본 국내로 우송한 경우에도 일본 국내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였다(2021.3.2 일본 국무회의 통과, 국회 의결 예정). 또한, 상기 내용은 디자인법에도 반영하여 디자인 모방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3. 디자인분야

(1) 개정 디자인법이 순조롭게 시행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본의 개정 디자인법은 i) 화상 디자인(물품성을 요구하지 않음), ii) 건축물의 외관, iii) 건축물의 인테리어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디자인의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보호 대상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미 800건 이상이 출원되었다.

(2) 개정 디자인법 중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

구체적으로는, 복수 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헤이그(Hague)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1 디자인 1 권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바, 심사 및 권리 부여는 각각의 디자인 별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종래와 같이 따로 발생한다.

또한, 물품명의 기재에 있어 구분이 완화되어, 종래에는 시행 규칙상의 물품 구분표에 준하여 물품의 명칭을 기재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물품 구분"표"를 삭제하는 대신에 물품명 기재의 기준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등기상 지점 철수 방법으로 대표자 전원의 퇴임 등기와 일본 지점 철수가 있다. 일본 지점 대표자의 등기가 있으면 일본에서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표자 전원이 퇴임하지 않는 한, 일본 지점의 등기부는 철수되지 않으며, 반대로 일본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할 경우에 일본 지점이 철수된다. 실무상 일본 대표자 전원의 퇴임 등기만 하는 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을 등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 대표자 전원 퇴임등기 수속의 일반적 절차
- 외국 기업에 의한 지점철수·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 결정
- 지점철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신청을 개별 통지 및 관보공고에 따라 최고(催告)
- 세무관청에 납세 관리인 신고
- 지점철수(위의 통지 및 공고 1개월 이후)
- 지점철수·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에 대한 선서 공술서 작성
- 주일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선서공술서 인증
- 법무국에 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등기 신청
- 철수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약 2주 후)
- 세무관청 등에 지점철수 신고

한편,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 철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영업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의 철수 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점을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형태로 바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점 철수 수속과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수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점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일본법인)의 자산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모든 대표의 퇴임등기를 한 경우, 지점의 철수일은 기재되지 않고 등기부는 철수된다. 일반적으로 선언 공술서에 지점 철수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지점 철수일을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1) 지점의 철수, (2) 일본 대표자 전원의 퇴임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대표자의 주소와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 다를 경우, 대표자의 주소 관할 법무국에 영업소 이전등기 등의 신고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본지점 폐쇄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사무대행회사 A의 사례)

- 수수료(선서 진술서 등 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관보공고게재 및 수수료(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등록면허세(수입인지대) : 3만 엔
- 상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인지대) : 600엔
- = 합계 : 약 130,600엔

한편 자회사(일본법인)를 철수 및 청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이 경우 채권자가 자회사 청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 자산액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자주적인 청산 수속이 불가능하며, 재판소 주도 하의 특별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수속의 일반적 절차
- 주주총회 등에서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을 결정
- 법무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 세무관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신고
- 자회사(일본 법인) 청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신청을 개별 통지 및 관보 공고에 따라 최고
- 철수 시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 위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주주총회 등에서 승인(합동회사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통지)
- 잔여재산의 확정 및 분배
- 주주총회 등에서 청산결료의 승인결의(위의 개별 통지 및 공고 2개월 후)
- 법무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 신청
- 철수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약 2주 후)
- 세무관청 등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청산결료 신고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청산비용은 약 아래와 같다. (사무대행회사 B의 사례)

- 수수료(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7만 엔
- 관보공개비용 : (10행일 경우) 약 35,000엔 (1행 3,589엔)
- 등록면허세 : 41,000엔 (해산등기 : 30,000엔, 청산인선임등기 : 9,000엔, 청산완료등기 : 2,000엔)
-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수수료 : 1통 600엔
- = 합계 : 약 150,000엔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액)

○ 참고

- ①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선서공술서 안내 관련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67/contents.do)
- ②JETRO 일본에서의 거점설립 방법 안내(폐쇄, 해산·청산) (https://www.jetro.go.jp/invest/setting_up/section1/page7/)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507만 명(2021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만 명($\Delta 0.48\%$) 감소했다. 일본의 인구 구조는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세인 반면, 64세 미만 인구는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 인구의 연령 구성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거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일본의 2020년 PPP기준 1인당 GDP는 약 40,146달러다.

<자료원 : 일본 총무성, IMF>

소비 성향

○ 코로나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전자상거래(EC)를 사용한 일반 소비자의 소비규모가 6.76%(*2019년,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기준)에 그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율(EC율)은 BtoC분야가 8.08%(전년비 1.332pt%증가), BtoB분야가 33.5%(전년비 1.8pt%)증가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 거래시장의 온라인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인터넷쇼핑의 경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2인 이상 가구를 포함한 전 세대에 걸쳐 전자 상거래에 대한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21년 조사기준 최신자료)

품목 또한 가구, 생활 잡화, 문구류 등 기존에는 비교적 품질 변동이 적은 제품에 한해 인터넷쇼핑이 이루어졌던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식료품, 화장품 등 전 품목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캐시리스(비현금결제) 및 비대면·비접촉 결제 선호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비접촉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20%대에 머무르던 일본의 캐시리스(비현금결제) 도입율이 2020년 29.7%로 처음으로 30%에 육박했다(전년대비 약 2.9%상승). 신용카드를 비롯한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전자화폐 등 비접촉 결제 가능 매장 수도 대폭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QR코드 결제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2020년 QR코드 결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년 사이에 약 4배나 증가했다. 일본 1위 QR코드 간편결제 서비스 'PayPay'의 2020년 총 결제액은 3.2조엔으로 전년대비 2.6배나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2021년 6월 기준 신용카드 발급건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확대됐다. 신용카드사 Visa가 출시한 비접촉식 단말기 터치 결제 서비스 'Evering'이 사전 예약 단계에서 매진되는 등 비접촉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일본인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다이어트·건강 기능 식품 열풍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 영양소 섭취가 강조되면서 식품을 통한 건강 관리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생활 습관병 예방이나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높은 중년층뿐 아니라 몸 가꾸기 열풍 등 미용 목적을 위해 건강식품을 찾고 있는 청장년층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 및 다이어트 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을 비롯한 저당질·저염·저칼로리 식품, 비건 식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맥주(KIRIN BEER)는 2020년 10월 일본 국내 최초로 당질 제로 맥

주를 출시해 판매 5일 만에 2020년 연간 목표의 50% 이상을 달성했으며, 2021년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최단 기간에 2억 개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2021년 4월에는 산토리맥주(SUNTORY BEER)에서도 당질 제로 맥주를 출시하는 등 일본 맥주 시장에 당질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

○ 친환경 가치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단계적 탄소세 도입, 친환경차 전환, 재활용 대책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일본 내에서는 친환경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청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과 동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가치 소비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한다고 답한 비율은 약 80%였다. 또, 식료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윤리적 소비를 염두해 두는 소비자도 61.8%를 차지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일본 기업에서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건 식품·화장품, 리사이클 제품 등 친환경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 개발에 힘 쏟고 있다.

○ 초고령 사회 일본, 시니어층이 주요 소비 세력으로 부상

2020년 11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3,632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인구와 비율 모두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1,886만 명으로써 대략 7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이라고 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출생자 수는 (2020년 기준)는 약 87만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이래 100만 명 이하 출생이 계속되고 있다. 1명의 여성이 생애 출산하는 아이 수에 해당하는 합계 특수출산율(2020년)은 1.34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2015년 1.4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노산이 늘어나고 미혼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당분간은 총인구가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워 사회 구성원 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의 판매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680만 명가량의 단카이 세대(團塊世代 : 인구통계에서 단과 "덩어리"처럼 뭉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가 은퇴, 연금 등으로 일본 전체 개인 금융 자산 1,700조 엔의 절반 이상을 보유, 큰 구매력을 지닌 시니어층이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고령화 상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 양극화 진행, 선별적 소비 형태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은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가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한편,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애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도 꺼리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매스 마케팅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선별 소비, 개별적 마케팅으로 이행되는 추세가 명확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명확한 컨셉에 입각해 개발된 "진품(혼모노 本物,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의미)"의 상품 및 서비스, 확실한 기술력에 기초한 고품질 상품,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 화장품과 한국 식품을 비롯해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 한국식 인테리어까지 큰 인기를 끌며 제4차 한류붐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한국식 메이크업 및 패션이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식 디저트와 한국의 카페 인테리어도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식 패션과 인테리어가 "트렌디하다"는 인식이 젊은 세대들에게 퍼져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방탄소년단(BTS)으로 대표되는 K-POP과 한국 드라마·웹툰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이 2021년 6월 일본에서 발표한 앨범이 약 100만 장의 이례적인 판매량을 기록해 화제를 모았으며,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를 비롯해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일본에서도 큰 열풍을 불러 일으키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도 재점화됐다.

특히 최근 카카오재팬이 일본에 출시한 웹툰 앱 '피코마(Piccoma)'가 기존 일본 만화업계에서 보기 드물던 '세로 스크롤 형식'의 컬러 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30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신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코마의 연간 매출액은 2019년 134억 엔에서 2020년 376억 엔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정치·경제 문제로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해당 문제가 일본 내 한류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류 소비가 일회성 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일본시장에 정착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선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가전 등의 전자 제품 및 자동차 등은 일본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LG전자의 OLED TV나 컴퓨터 모니터 등 한국산 디스플레이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는 높은 편이며, 최근 LG스타일러, 휴롬(착즙기) 등 기존에 일본에서 잘 없던 개념의 제품이 인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자료

상담 이전에 자사 카탈로그를 미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은 꼼꼼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상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인은 회사의 규모나 실적 등을 중시하므로 회사의 규모나 연혁,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 소개 자료나 공개해도 무방한 거래처의 리스트 등의 자료를 카탈로그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매우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안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거래선 중 유력 회사가 있다면 회사의 신용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 활자는 진실에 버금가는 것이므로 무역이나 기타 분야의 정기 간행물 등에 자사나 자사 제품에 관한 소개 기사가 게재됐을 경우 이것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하는 것이 비즈니스 상담에는 효과적이나 별도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 영어 자료라도 준비하도록 한다.

2) 좌석

상대방 기업에 방문했을 경우 방문자는 자리를 안내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접실에서는 안내인이 자리를 지정해 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구 쪽에 앉아서 기다린다. 방문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직위가 높은 순서로 입구 쪽에서 먼 자리부터 차례로 앉는다. 짐, 가방은 앉은 자리에 두지 않고 발밑에 둔다. 상담상대가 나타나면 즉시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상담상대가 앉기 전까지 먼저 앉지 않도록 한다.

3) 상호신뢰 관계 구축 필요

일본에서는 거래의 시작 및 유지를 위하여, 거래 조건과 개인의 신용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방문해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거래교섭은 신뢰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는 소개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성립 후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거래에서 신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거래 기간이나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간관계 중시의 상거래 관습은 일본 시장에 있어 강력한 유대를 발휘하고 있으며 일본 신규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일단 기업 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마치 관행과 같이 장기적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많은 일본기업은 품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작은 요구사항(사양변경, 납기, 비용상담) 등에도 적극 검토해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즉 일본 기업은 상품 공급자와 실시간 시세에 따른 최저가격에 의한 일시적 거래를 하기보다는 장기적, 안정적인 거래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 이익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 유럽 업체들이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는 경향과 대비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거래를 시작할 때 거래조건 등의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계약서에 의해 거래를 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일본업체는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상호접촉이 필요하지만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주문을 전화나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계약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거래조건 전부를 명기하지는 않으며 교섭과정에서의 의견교환, 사후에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대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4) 코로나 이후 新 비즈니스 매너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해제 이후 서서히 기업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경단련)은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공표,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생활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회의/명함교환은 온라인으로", "대면 회의 시에는 환기/마스크 착용"을 들고 있다.

또한, 대면 이전의 화상상담에서도 상호 간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대면 미팅과 다르게 온라인을 통한 상담 시에는 긴장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복장/머리 등에 있어 정돈되어있지 않은 사례가 발생 중이다.

그 외에도 회의 시 필요한 자료의 사전송부 등,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며 카메라나 마이크의 위치, 광원 및 배경 등의 촬영환경에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이후 뉴노멀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매너"로서 공통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착까지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도 상호 간의 인식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철칙이다. 면담 시간을 비롯해 납기, 자료 제출 기한 등을 지키는 것은 일본 기업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아울러 비즈니스에 관한 약속을 할 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성실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을 경우는 반드시 미리 사정을 설명하면서 사죄의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즉답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대답하지 않고, 자사에 확인 후 신속하게 회신을 하겠다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성실, 정확, 신속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상담 상대에 호감을 주는 것, 성약이 될 경우 최선을 다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면담 약속은 보통 2주 전까지는 잡는 것이 상식이다. 날짜가 임박해서 약속을 잡을 경우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 일본인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단 약속시각을 잡으면 함부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한테 남기는 것이다. 방문 전에는 방문 목적, 방문자 수, 방문자 이름과 직위/직책 등을 사전에 전달하는 것이 좋고, 방문 시에는 약속 장소에 5~10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일본 기업과 상담 또는 면담 약속을 정하는 경우, 중간 소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직접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면으로 연락을 취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중요한 건의 경우는 서면 연락 후 전화나 메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본어로 전화 통화 시 유의할 점은 자기회사 사람에 대해서는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자기 회사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님과 같은 존칭을 붙여서는 안 된다.

참고로 일본 회사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일반적이거나,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 대기업의 경우 월-금 평일 근무가 많다. 근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는 5시 30분까지가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 그리고 신년(12/28~1/3), 골든위크(4/29~5/5), 오봉(お盆, 8월 중순)에는 대부분의 일본기업이 장기 휴가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본 기업을 방문하거나 상담 약속을 정할 때 위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2) 인사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오지기'(お?儀)이다. 오지기는 감사나 경의를 표할 때나 사과할 때, 원가를 부탁할 때에 상대방에게 허리를 구부려 하는데, 서서 하는 오지기에는 '에샤쿠(會釋)', '경례(케이레이, 敬禮)', '최경례(사이케이레이, 最敬禮)'의 3가지가 있다. '에샤쿠(會釋)'는 동료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행하는 간편한 오지기이며, 상체를 15도 정도 구부려야 하고, 목만 구부려 하는 '에샤쿠(會釋)'는 매너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본인도 존재한다. '경례(敬禮)'는 거래선 등과 면담할 때나 무엇인가를 의뢰할 때 하는 오지기이며, 상체를 30도 정도 구부린다. '최경례(最敬禮)'는 가장 정중한 오지기이며, 크게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할 때

상체를 45~60도 정도 구부려 행하게 된다. 남성은 허리를 굽힐 때 팔을 몸 옆에 붙이게 되고 여성은 양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포개게 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스킨십을 요하는 인사는 행하지 않으며, 악수나 포옹을 하거나 볼을 만지는 인사는 일반적이지 않다.

3) 선물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중요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오츠크겐'(お中元), 연말에는 '오세이보'(お歳暮)라는 선물을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끼리 교환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일본인들은 선물의 가치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는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일본 기업으로부터는 매우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선물의 대소가 비즈니스 성과와 직결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편 선물을 일본인들에게 건넬 경우에도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한 식품 등을 선물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한국 선물로는 김치, 김, 차(옥수수차, 둥굴레차 등), 과자, 화장품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선물을 받을 때 바로 포장을 열기보다는 선물을 준 사람이 돌아간 후에 포장을 여는 풍습이 있다. 또한 일본인들은 선물을 받을 때 2번가량 사양의 의사를 보일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풍습의 일환으로, 선물을 받을 의지가 정말로 없다는 뜻은 아닌 경우가 많다. 선물로 적절하지 않은 품목으로는 손수건, 칼, 불과 관계있는 것(라이터, 재떨이 등) 등이 있다. 손수건은 일본말로 '테기레'(手切れ)라고도 하며, 테기레는 '절연'을 의미하는 말이고, 칼 또한 관계의 단절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물 개수가 4와 9(4=시='死', 9=구='苦'를 연상)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접대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식사비 지불은 더치페이식으로 하지만 식사에 초대받는 경우 지불은 초대한 측이 한다. 주문은 메뉴가 일본어로 쓰여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말기는 것이 편하다. 먹을 때는 마음껏 먹고 다 먹은 후에는 고치소-사마데스(잘 먹었습니다) 내지는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감사합니다) 등의 감사 인사를 한다. 접대 중에는 일에 관한 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를 증진하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의 하나로 다짜고짜 역사 얘기나 정치 이야기를 꺼내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식, 음주, 온천, 관광 등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무난하다. 또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피하고 상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준다. 기업 대 기업으로 초대받아 접대를 받을 경우 식사 후 감사의 뜻으로 과자 같은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5) 복장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색이나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그리고 어두운색의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정장문화)이 보통이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디자인과 색상이 중요시돼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특정 업계, 공공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스타일의 정장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본에서 테이블이 아닌 좌식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발을 벗어야 하므로 복장뿐 아니라 양말의 색상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도 긴 팔 와이셔츠에 상의를 입고 (아니면 들고라도) 다니기 때문에, 덥다고 해서 노타이 차림으로 다른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실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일본 정부의 주도로 쿨비즈(Cool-biz, 하절기 간편복장)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반팔 와이셔츠 및 노타이 차림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중요한 상담이나 첫 대면 등에는 아무래도 정장 차림으로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6) 식사

종교적 이유의 음식, 음주 관련 제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식을 좋아하나, 일본에는 양식, 중식, 한식 등 세

계 주요 음식들이 넓게 보급돼 있는 만큼 일본인과 식사할 때 일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일본인과 식사 시 유의사항으로는 일식을 먹을 때는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목을 닦는 것, 식탁 위에 담배를 두는 것, 식사 중에 이쑤시개를 쓰는 것 등이 매너 위반이다. 또한 젓가락을 쓸 때는 젓가락으로 식기를 움직이는 것, 젓가락을 핏거나 무는 것, 식기 위에 젓가락을 두는 것, 음식물에 젓가락을 찌르는 것 등은 좋지 못한 인상을 상대방한테 남길 위험이 있다. 또한 일본은 화장하고 남은 뼈를 젓가락으로 납골함에 담은 문화가 있어서 음식을 젓가락에서 젓가락으로 전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다.

식사 중의 좌석 배치(비즈니스 매너)는 ① 출입구로부터 가장 먼 자리, ② 일본식 방(和室)의 경우 도코노마(床の間)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상석이라 할 수 있고, ③ 초대된 사람의 경우 상대방보다 직위가 낮아도 끝자리에 앉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7) 명함

명함 교환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상담 시 명함 교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본에서 명함은 늘 충분히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또한, 명함은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된 명함보다는 한자와 영어로 된 명함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대부분 가족으로 된 명함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며, 깨끗한 상태의 명함을 상대방에게 건네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수첩이나, 지갑에서 때가 묻은 명함을 꺼내서 건네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명함은 악수나 인사를 한 뒤에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명함을 건네받은 후에는 주의 깊게 명함을 살펴본 후, 발음이 어려운 이름이거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명함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명함 지갑에 넣거나 겹치지 않도록 가지런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도록 한다. 명함을 받고 나서 바로 바지 주머니나 재킷 안쪽에 넣는 행동이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명함 위에 메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8) 호칭

성 혹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일본에서는 보통 이름(名)은 가족 및 친한 친구 사이에서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성(姓)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 다음에 「상(한국어의 ~씨 에 해당)」을 붙여서 호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 뒤에 그 사람의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직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 여기에 상을 추가로 붙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령 한국어로 야마다 부장님이라고 할 경우 ‘야마다 부초(部長)’라고 부르며 여기에 한국어의 님에 해당하는 ‘상’ 또는 ‘사마’를 붙이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외부인에게 자사 직원을 소개할 때는 직위나 ‘상’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9) 대화 주제 및 일본식 영어 고려

첫 대면에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일본 경제에 대한 칭찬이나 일본 스포츠(야구, 축구, 골프 등)에 대한 뉴스 등에 대한 화제를 언급해 상대방과 친밀감을 도모,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세계 무대에서 한·일이 경쟁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며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 등 민감한 역사 문제, 심한 농담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인들의 특성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줄임 말과 일본식 발음의 영어를 자주 쓴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시 영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일본 고유의 언어(일본식 외래어)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포인먼트(약속, appointment)를 줄여서 아포(アポ)라고 하거나,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프레젠(プレゼン)이라고 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일본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라쿠텐 시장(www.rakuten.co.jp)

- 개요: 일본의 인터넷 서비스 대기업 라쿠텐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 2020년 연간 일본 내 전자상거래 유통 규모가 4조 5,000억 엔으로 일본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라쿠텐 ID를 보유한 회원 수는 2020년 기준 약 1억 1,980만 명으로 압도적인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라쿠텐은 1994년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1조 4,555억 엔, 고용인원은 20,053명(2019년 12월 기준)이다.
- 주요 판매 품목: 패션, 잡화, 식품, 화장품, 서적 등 생활소비재, PC 및 가전 등의 전자제품, 자동차, 오토 바이 등
- 특징: 일본 내 인터넷 통신판매 시장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식품 및 의류 부문에서는 전체의 EC거래량의 37%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라쿠텐 회원을 대상으로 라쿠텐 포인트 클럽(Point Club)을 운영 중이며 라쿠텐 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여행상품, 간편결제, 전자 서적, 모바일 통신 등)와 연동해서 라쿠텐 포인트를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그 외에도 연간 4회 약 일주일간 약 200만 개 이상의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라쿠텐 슈퍼 세일)를 진행하고 있다.

2) 아마존 재팬(www.amazon.co.jp)

- 개요: 미국 아마존재팬의 일본 현지법인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가 운영하는 아마존재팬은 설립 초기는 도서 판매업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나 현재는 일본 최대규모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성장.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검색 가능하다. 2020년 기준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 수는 4억 개가 넘는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2조 1,848억 엔이며 고용인원은 9,393명(2020년 10월 기준)이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정 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 PC용품이나 가전 등의 전자제품, 식료품 등
- 특징: 2007년부터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통해 회원들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책(Prime reading), 영화 및 음악 감상 등을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일정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타임세일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동 프로모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3) 야후쇼핑(shopping.yahoo.co.jp)

- 개요: 일본 최대 검색 포털 야후재팬(Yahoo! Japan)이 운영하는 일본 3위 전자 상거래 플랫폼. 초기 입점 비용, 플랫폼 이용비, 판매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입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기존 야후재팬의 보유 고객(월간 로그인 사용자 수 4,587만 명)을 활용해 야후 쇼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타사 EC 플랫폼과 다르게 야후쇼핑에서는 판매자가 자사 독립 쇼핑몰 링크를 게재할 수 있으며 고객 이메일 수집도 가능하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8,519억 엔이다. 야후재팬 전체 고용인원은 12,244명(2018년 3월 기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판매 품목: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제품, 화장품, 패션, 식품, 여행용품 등
- 특징: 월정액 508엔의 야후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면 야후쇼핑 포인트 추가 적립 및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본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 사용자라면 회원비 없이 프리미엄 회원의 혜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약 6,908만 명(2019년 3월 기준)의 회원을 보유한 T포인트 및 일본 1위 간편페이 PayPay와 연동해 포인트 적립 및 호환이 가능하다.

4) au PAY 마켓(wowma.jp)

- 개요: 일본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KDDI의 자회사인 au커머스&라이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사 통신사 au 사용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체 거래 중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고객층은 3040대 여성층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매출 규모는 약 1,287억 엔으로 추정되며 고용인원은 563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주로 여성용 패션, 생활 가전, 일상 용품, 화장품, 식품, 인테리어 잡화 등
- 특징: 월정액 548엔의 au 스마트패스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면 '프리미엄' 표시가 붙은 제품에 한해 배송료가 무료이며 간편결제 서비스 au PAY 이용 시 할인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사가 au인 사용자는 au PAY 마켓에서 상품 구입 시 통신료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5) 큐텐 재팬(www.qoo10.jp)

- 개요: 이베이 재팬(eBay Japan) 합동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거래가 성사됐을 때에 한해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심플한 수수료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해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심플한 수수료 제도를 가지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 기준 매출 규모는 약 1,209억 엔으로 추정되며 고용인원은 140명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고객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리고 30대의 젊은 여성층이 중심을 이룬다. ◦ 주요 판매 품목: 화장품, 패션잡화, 액세서리, 미용 관련 제품 등 ◦ 특징: 매일 시간대별로 다양한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타임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내에 ‘공동 구입’ 시스템을 개설해 특정 제품의 구입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해당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타사 EC몰에 비해 한국산 화장품 및 한국 패션 등 한국기업의 제품이 많이 출품된 것이 특징이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다각적인 홍보전략으로 성공한 A사

A사는 해외가전제품의 황무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시장에 이불 살균청소기라는 새로운 개념의 가전제품을 다각적인 홍보전략 통해 성공적으로 런칭했다. TV 광고, 홈쇼핑, 가전양판점, 온라인판매 등 다양한 홍보판매채널을 구축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일본에 침구살균기라는 새로운 장르의 시장을 창출했다.

2012년 본격적인 일본 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 지사를 설립. 2012년 2월에는 연예인 간접 홍보 방법을 이용한 신제품 런칭 발표회 개최 및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쳤다. 또한, 2012년 초 병원 및 알레르기 퇴치연구소의 공인 테스트 결과를 이용한 신문, 잡지, 온라인 매체 홍보를 통해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침구살균기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2013년도에는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가전제품 최대 유통채널인 가전양판점 홍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시연이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의 가판대를 제작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TV 광고 제작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체험담을 포함한 CM을 제작해 침구살균기의 효능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로 전달한 것이 일본시장에 적중했고,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장기적인 홍보전략 구축으로 침구살균기는 A사라는 이미지를 일본 내 정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13년 말에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사상 최초로 닛케이 히트상품 8위에 선정되는 결과를 이뤄냈으며, 2018년 기준 일본을 비롯한 세계시장 누계 출하 대수 600만 대를 돌파,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다.

2) 기술은 기본! 도쿄 IT 지원센터 입주까지 활용한 B사

B사는 PC 등의 단말기를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원격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스마트폰을 일반 PC로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증진으로 2011년에는 대한민국 SW 대통령상을 받는 등 국내에서 성과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B사는 일본시장 최초로 스마트폰을 PC로 원격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NTT 도코모와 성약 성공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안드로이드)과 PC는 OS 기반이 서로 달라 원격제어를 하는 기술이 쉽지 않았으나 해당사가 이를 업계 최초로 상용화시켰다. B사는 도쿄 IT 센터 입주를 통해서 일본시장 진출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일본시장 “리모트 원격 툴” 분야 시장점유율 2006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2년에는 대일 수출실적 868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일본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성과는 일본 최대 통신사업자 NTT 도코모에게도 인정을 받아, 2012년 8월 이후 출시되는 NTT 도코모(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스마트폰에 B사 제품이 탑재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에는 NTT 도코모로부터 144억 원 투자유치가 성사됐으며, 향후 모바일 R&D 센터 공동운영 등 업무제휴를 실시 한다. 이후 정부, 공공단체, 금융, 제조사 등을 고객사로 확보, 일본 내 리모트 서비스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사가 지닌 장점은 스마트폰을 PC로 원격지원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원격 지원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반드시 OK를 해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은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일본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지에서 즉각 대응하는 이른바 유지보수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러한 점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고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IT 센터 입주로 안정적 비즈니스, AS 제공이 가능했다는 것도 큰 요인이었다. B사는 경쟁 원격지원 개발사 중에서도 특히 콜센터 등의 고객지원용 솔루션에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상담원이 고객의 문의를 접수해 애로사항을 처리할 때 원격지원 솔루션을 사용코자 한 사업이 큰 성공 요인이자 할 수 있다. 이후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일본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 B사는 2017년까지 일본 원격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일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3) 기업니즈를 발 빠르게 파악해 계약수주로 이어진 C사

C사는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우수 통신 기업의 파트너사로 실력을 쌓아왔다. 국내에서의 실적을 발판으로 일본 진출을 노렸으나 쉽지만은 않았다. 2015년 글로벌기업의 일본 법인과 첫 미팅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줄다리기 끝에 2016년 6월 첫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6년 12월부터 개발에 돌입, 2017년 8월 첫 수주에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도쿄 IT 지원센터에 입주하여 현지화 및 현지 대응에 힘을 쏟고 여러 조연을 얻어 개발과 미팅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제품은 해당 글로벌 기업의 단독 벤더로 매년 일 정규모의 매출이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본 내 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최근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4)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출장불가에도 적극적인 진출노력으로 성공한 D사

유아용품 제조 중소기업 D사는 2020년부터 일본시장 첫 진출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출에 난항을 겪었다. 이

러한 일본의 경기 위축과 직접적인 미팅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KOTRA의 긴급지사화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바이어 발굴 노력, 화상 상담 및 지속적인 고객의 니즈 파악과 대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기업 및 KOTRA의 적극적인 연계로,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도 수주에 성공하여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발을 내디디게 되었으며, 첫 수주에 따른 기업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추가 발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 기업은 해외수출실적이 전무했던 기업으로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적극적인 수출의지, 국내(기업-KOTRA 전문위원) - 해외(KOTRA 무역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뉴노멀시대의 무역에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5)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 제조로 성공한 E사

E사는 알루미늄 압출 제조사로 알루미늄 창호(커튼월), 난간 등을 전문 제조하여 관공서 등에 주로 납품을 해왔다. 일본에도 오래전부터 수출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간단한 간판제작용 알루미늄 사시가 중심으로, 수출규모는 미미했다.

이러한 E사의 일본수출이 증가하게 된 계기는 KOTRA의 인콰이어리 제공을 통해서이다. 인콰이어리 제공 당시 E사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E사의 주력 아이템이 아니었고 제조 경험도 많지 않아서 제조 대응에 난색을 표했으나, 자사의 우수한 압출제조 능력이 있으니 도전해보자고 의기투합 하여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알루미늄 루바는 정상적으로 제조되었으나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도장의 질 수준이 매우 높았다. 샘플 제작하여 합격을 받고 발주를 받아 제작에 들어갔으나 출하 전 검사에서 제품의 80% 이상이 도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도장을 전부 지우고 재작업을 한 후에 간신히 납품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난관을 겪은 이후에는 일본 바이어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발판삼아 2019년에 수출에 처음 성공한 이래 다양한 바이어에게 추가 수주를 받아 수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제조사가 자사 주력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이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일본에서 원하는 질을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KOTRA 지사화사업을 통해 수입절차, 시장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시장확대를 노력한 점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종류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규정된 일본의 체류자격은 총 29종류로 구분이 되며, 이 중의 하나를 취득해 체류하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때에 각각의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해당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은 29종류의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 상륙해 체류할 수 없다. 가령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단순 노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륙, 체류의 신청을 해도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상륙도 체류도 허가 받지 못한다. 또한 외국인은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라도 입국 및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2015년 4월 시행)에 의한 고도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 '고도전문직'이 창설, 체류자격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일원화되었으며 체류자격 '투자·경영'이 '경영·관리'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6년 입관법 개정(2017년 9월 1일 시행)으로 체류자격 '개호'가 창설되었으며 2018년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으로 '특정기능'이 창설되었다.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입관법의 별표 제1의 1~5 및 별표 제2로 29종류로 구분된다.(2021년 8월 기준)

○ 별표 제1의 체류자격(활동유형자격)

- ① 6종류(취업자격)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 ② 13종류(취업자격) :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 ③ 2종류(비취업자격) : 문화활동, 단기체재
- ④ 3종류(비취업자격) : 유학, 연수, 가족체재
- ⑤ 1종류 : 특별활동

○ 별표 제2의 체류자격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 (총 4종류)

※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 범위

(1) 활동 제한 없음

- 별표 제2의 체류자격(4종류) : 영주권,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의 배우자, 정주자의 총 4종류는 활동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2) 활동 제한 있음

-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활동 제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예술, 연구, 교육 등 총 19종류가 이에 해당되며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발급을 받아야 한다.(2021년 8월 기준)

* 고도전문직 1호, 2호 : 2015년 4월 신설된 것으로 고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출입국 관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고도전문직 1호"는 현재 고도 인재에 부여되는 "특별활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재류한 고도 인재가 대상으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되는 것 외에도 취업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에 의한 것 : "특정활동"이라 불리는 재류자격으로 "법무 대신이 각각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의 가족 사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제휴 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후보자 등

(3) 활동 불가

- 비취업자격으로 분류되는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총 5종류의 재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일본에서의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비자 발급 절차

현재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 19 감염확대에 따라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접수를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한다.

○ 비자의 발급

- 필요서류 준비
-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 여권(일본 체류 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긴 상태를 권장)
- 사진(컬러, 상반신, 가로 4.5cm×세로 4.5cm 또는 가로 3.5cm×세로 4.5cm,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에서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 것)
- 기타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교부 신청(심사 1~3개월 소요)
- 교부받은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비자 발급

3) 기타 참고사항

○ 현재 일본에 입국하는「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증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사증 신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

- (1)「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체재하고 있고, 가족이 분리 된 상태에 있는 자
- (3) 이전「영주자」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또는 간주(미나시) 재입국 허가 기한 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자
- (4)「교육」또는「교수」의 재류자격을 취득한 자로, 소속 또는 소속 예정의 교육기관에 결원이 발생해, 그 보충이 없으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 실시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필요가 있는 자
- (5)「의료」의 재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의료 체제의 충실·강화에 이바지하는 자
- (6) 기타 긴급 인도적 안건 (일본거주의 친족의 사고, 질병, 사망, 일본에서의 치료 (생명 유지에 관련된 것에 한함) 등)

※ (주) 사증 신청에 있어서「특별한 사정」이 인정 될지 판단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 문의 요망(사증 상담용 주소: visa@so.mofa.go.jp 전화 번호: 02-739-7400)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비즈니스 트랙) 일시정지(1.14)

- 코로나19 번이 바이러스의 일본 내 유입 차단을 위해 2021년 1월 14일(목) 0시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정지된 바, 2021년 1월 14일(목)부터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2022년 1월 현재 시행 중)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일본은「외국환율 및 외국 무역법」에 의해 100만엔 이상(수표·유가증권등 포함)을 반출입할 경우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3병(760ml를 한 병으로 계산)
- 담배: 종이에 쌓인 것에 한해 200개비, 가열식은 개별 장치 등 10개비 (1상자에 수량이 종이 담배 20개비에 해당하는 양), 잎담배는 50개비
- 향수: 2온스(56ml)
- 기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까지 면세 대상(1만 엔 이하 품목도 면제 계산에서 제외)

세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지는 항공기 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81-3-3452-7611~9
주소	東京都港南麻布1-2-5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비고	이메일: 경제관계 : economic_jp@mofa.go.kr 교육관실 : education_jp@mofa.go.kr 문화원 : postmaster@koreanculture.jp 홍보관실 : information_jp@mofa.go.kr 운영지원과 : general_jp@mofa.go.kr 정무관계 : political_jp@mofa.go.kr 재외국민 법률상담 : legal_jp@mofa.go.kr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전화번호	+81-3-3455-2601 ~ 3
주소	東京都港南麻布 1-7-3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index.do
비고	이메일 : consular_jp@mofa.go.kr

◦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78-221-4853~5
주소	神戸市中央中山手通2-21-5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be-ko/index.do
비고	이메일 : kobe@mofa.go.kr

◦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52-586-9221
주소	愛知県名古屋市名南1-19-1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nagoya-ko/index.do

비고	이메일 : nagoya@mofa.go.kr
----	-------------------------

○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25-255-5555
주소	新潟市中央万代島5-1万代島ビル8F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niigata-ko/index.do
비고	이메일 : niigata@mofa.go.kr

○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11-218-0288
주소	北海道札幌市中央北2西12-1-4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sapporo-ko/wpge/m_416/contents.do
비고	이메일 : sapporo@mofa.go.kr

○ 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22-221-2751~3
주소	宮城仙台市青葉上杉1-4-3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sendai-ko/index.do
비고	이메일 : sendai@mofa.go.kr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6-4256-2345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久太町2-5-13 五味ビル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osaka-ko/index.do
비고	이메일 : osaka@mofa.go.kr

○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45-621-4531~3
주소	神奈川県横浜市中山手町118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yokohama-ko/index.do
비고	이메일 : yokohama@mofa.go.kr

○ 주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82-505-2100~1
주소	島市南翠5丁目9-17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hiroshima-ko/index.do
비고	이메일 : hiroshima@mofa.go.kr

○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81-92-771-0461~2
주소	福岡市中央地行浜1-1-3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fukuoka-ko/index.do
비고	이메일 : fukuoka@mofa.go.kr

○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81-3-3357-5970
주소	東京都新宿四谷4-4-10
홈페이지	https://www.koreanculture.jp/korean/
비고	이메일 : postmaster@koreanculture.jp

○ 한국 수출입은행 동경사무소

전화번호	+81-3-3580-8702
주소	東京都千代田幸町1-2-2 日比谷ダイビル 19F 1904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17006001001
비고	이메일 : extokyo@hotmail.com

○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전화번호	+81-3-6826-5170
주소	東京都千代田永田町2-13-10 PRUDENTIAL TOWER 3F
홈페이지	https://www.koba.or.jp/
비고	이메일 : jjpp@kita.net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전화번호	+81-3-3213-6961
주소	東京都千代田丸の3-4-1 新際ビル 8F 837
홈페이지	http://www.bok.or.kr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내각부

전화번호	+81-3-5253-2111
주소	東京都千代田永田町1-6-1
홈페이지	https://www.cao.go.jp/

○ 경제산업성

전화번호	+81-3-3501-15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1-3-1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index.html

○ 외무성

전화번호	+81-3-3580-33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2-2-1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mofaj/index.html

○ NHK

전화번호	+81-570-066-066
주소	東京都谷神南2-2-1
홈페이지	https://www.nhk.or.jp/info/
비고	일본방송협회

○ 요미우리신문

전화번호	+81-3-3242-1111
주소	東京都千代田大手町1-7-1
홈페이지	https://info.yomiuri.co.jp/index.html
비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신문

○ 일본은행(BOJ)

전화번호	+81-3-3279-1111
주소	東京都中央日本橋本石町2-1-1
홈페이지	https://www.boj.or.jp/index.html/
비고	일본의 중앙은행

○ 후생노동성

전화번호	+81-3-5253-11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1-2-2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index.html

○ 법무성

전화번호	+81-3-3580-41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1-1-1
홈페이지	http://www.moj.go.jp/

○ 총무성

전화번호	+81-3-5253-5111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2-1-2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

〈자료원 : 각 기관/기업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13.72JPY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430
2	식품	비빔밥	1인분	7.74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0.38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0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19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46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760
8	의료	항생제	12정	11.41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85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1.49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69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35.91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48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3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6.12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5.01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8.62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시급	9.15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5853.000
20	금리	국채금리정보(재무성)	%	-0.100

<자료원 : 일본은행, 일본 총무성, 도쿄도 수도국, 전철, 택시 요금, 각 사 홈페이지, 주요 음식점 평균가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엔(Yen)으로 약칭은 ¥이다. 지폐로는 10,000, 5,000, 2,000, 1,000엔이 있으나 2,000엔 지폐는 유통량이 적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전 종류에는 1, 5, 10, 50, 100, 500엔이 있다.
------	--

환전방법

공항, 은행 등 환전이 가능한 곳이라면 원을 엔으로 환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공항보다는 미리 출국하기 전에 명동 환전소나 은행에서 환율우대를 받아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일본의 주요 은행(유초, 미즈호, 미쓰비시, 미쓰이스미토모 등), 세븐일레븐 ATM에서는 한국 신용카드*(VISA, 마스터카드 등)로 엔화 인출이 가능

* 해외사용여부의 경우 각 카드사 조건에 따라 상이

신용카드 이용

이전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상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점 등 외에는 대체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지방으로 갈수록, 또한 스시, 우나기 등 일본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현금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비현금결제 이용 시 이용요금할인, 비현금결제 결제단말기 보급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최근 들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한 비현금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SUICA, PASMO 등), 라인페이, PayPay 등과 같은 QR코드/바코드를 통한 전자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라인 페이의 경우 한국의 네이버 페이와 연동되어 결제할 수 있으며, 라인 페이 가맹점에서 네이버페이 QR코드 결제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일본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해있으나 한국에 비해 요금이 비싼 편이다.(도쿄 야마노테선 기준 1구간 이용요금 140엔)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등하교를 할 경우 정기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학생의 경우 각 학교에서 발행해주는 '통학증명서'를 통해 일반 정기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정기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정기권 내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일본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Google Map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원하는 목적지 및 출발지를 입력하면 대중교통 등을 통한 경로가 표시되어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동 거리에 비해 택시비용이 매우 비싸고 주차요금도 비싸 현지 직장인들도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Google Map, Yahoo Map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장 전 휴대폰에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다.

버스

◦ 도영 버스(도쿄도가 운영하는 버스)

버스 앞쪽에 있는 문으로 탄 후 운전석 옆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 170~210엔을 넣는다. 내릴 때는 뒤쪽에 있는 문으로 내린다.

◦ 사영 버스(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버스)

문으로 타고 정류장 번호표를 받는다. 하차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에 따라 버스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 내릴 준비를 한다. 내릴 때 운전석 위쪽에 있는 번호표 번호에 맞는 요금 금액을 확인하고 운전석 옆에 있는 요금함에 돈을 투입한다.

최근에는 도영 버스 및 사영 버스를 승차할 때 SUICA나 PASMO 등의 전자식 IC 카드를 이용 가능하며, 탑승구 오른쪽에 장착된 단말기에 터치한 후 내릴 때 운전사 옆에 장착된 단말기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므로,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본에서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택시

일본 택시는 한국 택시에 비해 요금이 비싼 편으로, 기본요금은 1.052km에 410엔(도쿄도 23구 한정)이며, 237m마다 80엔씩 가산된다.

2017년 상반기부터 인화된 금액으로 고령자, 방일 외국인이 단거리를 택시로 이용하는 '단거리 탑승' 수요를 환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쿄 이외의 지역 택시는 변함없이 기본요금이 710엔 정도다.

올림픽 개최준비에 따른 방일관광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택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이 불가한 택시도 있어 탑승 이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앞유리 왼쪽에 있는 표시등에 빨간색 글자로 “空車”라고 쓰여 있는 택시는 탈 수 있다.

달리는 택시의 경우 손을 들어 세운 다음 운전기사가 왼쪽 뒷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면 승차, 행선지를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한다.

일본에서는 운전기사에게 별도 팁의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기타 교통수단

전철을 탈 경우에는 먼저 표를 자동판매기로 구입한다. 보통 판매기 위쪽에 노선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역의 이름과 요금을 알 수 있다. 목적지까지의 표를 구입한 다음에 개찰구를 통과한다. 단, 특급권, 좌석 지정권은 자동판매기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역의 매표소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철도 노선도를 보면 노선이 달라도 역명이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두 철도 노선의 운영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일단 개찰구를 나와 새로운 노선의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특히 JR과 지하철 간에는 역명이 같아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는 개찰구를 통과해 일단 지상으로 나와서 다시 갈아탈 노선의 역으로 가야 하며, 역에 따라서는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SUICA나 PASMO 등의 전자식 IC 카드를 이용하면, 환승 시에 별도 요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자전거 대여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렌탈 자전거 서비스 중에서 도쿄의 경우 NTT도코모 그룹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회사 "도코모 바이크쉐어"가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닛코, 오키나와 등의 관광명소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는 전동 자전거로 비탈길이 많은 일본에서도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다. 통신

핸드폰

여행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불(프리페이드) SIM카드를 구매하여 데이터를 이용한다.(전화 사용 불가)

최근에는 주요 통신사 및 기타 회사가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체류자(비자 보유자)의 경우 전화번호가 지정되는 후불 휴대전화 개통이 필수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은 경우 통장개설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 주요 통신사 : NTT Docomo, au(KDDI), Softbank, Rakuten 및 MVNO
 - 선불SIM카드의 경우 각 공항 및 가전양판점(빅카메라, 요도바시카메라 등) 판매, 후불 SIM카드의 경우 각 통신사 대리점 및 가전양판점 등 계약 체결이 필요
- 추천 SIM 카드
 - LINE MOBILE: 최대 특징은 라인 앱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데이터 통신료가 무료인 점. 일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가 없어도 계약할 수 있어 음성통화 대신 SNS 사용이 많은 외국인에게 추천한다.
 - 라쿠텐 모바일: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SIM 카드
- 유의사항 : 일부 휴대전화의 경우 일본 전파법에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기술적합마크 표기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한국 3대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일본에서 데이터, 음성, SMS 등이 사용가능한 로밍 서비스 이용 가능

인터넷(와이파이)

- 무료 Wi-Fi
도쿄도 내 주요 관광시설 및 각 공항, 전철 및 버스 등에서는 무료 Wi-Fi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에는 메일주소나 SNS의 계정연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도쿄도 내 Wi-Fi는 Japan Connected-free Wi-Fi, Travel Japan Wi-Fi 등의 무료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 포켓 Wi-Fi
일본 내 주요 공항에서 포켓 Wi-Fi의 렌탈(유료)이 가능하며, 데이터 이용량 등에 따라 요금제 설정이 가능하다.
사전에 예약하는 경우 숙박처(호텔 등)까지 배달해주는 업체도 있으며, 공항세 등이 절감되어 요금이 저렴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 가정 내 인터넷
장기 거주자의 경우 자택 내 인터넷 회선 개통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개통까지 2주-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주처 계약 이후 사전 계약을 통한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 건물에 따라 회선공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맨션 등 집합건물에 입주할 경우에는 설치되어있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의 확인이 필요하다.

라. 관광명소

○ 하우스텐보스(Huis Ten Bosch)

도시명	나가사키
주소	長崎佐世保市 ハウステンボス町1-1
운영시간	9~22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17세기 네덜란드의 거리를 재현해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테마파크이다. 입장료는 5000엔
비고	전화: +81-956-58-0080 홈페이지: https://www.huistenbosch.co.jp/

○ 나고야 성(Nagoya Castle)

도시명	나고야
주소	愛知名古屋市 中本丸1-1
운영시간	9시~16시 30분
휴무일	12월 29일~31일, 1월 1일(4일간) 단, 행사 등으로 변경될 경우가 있다.
명소소개	161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대 기술을 결집해 축조한 성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 성 내 니노마루(二の丸)정원을 포함한 주요 유적은 2차 대전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다. 현재와 같이 복원되면서 벚꽃 등 일본의 정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비고	전화: +81-52-231-1700 홈페이지: https://www.nagoyajo.city.nagoya.jp/

○ 도쿄 디즈니 리조트(Tokyo Disney Resort)

도시명	도쿄
주소	千葉浦安市 舞浜1-1
운영시간	10~19시 (임시 운영시간)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도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 리조트로 여섯 개의 특징 있는 주제별로 구성된 디즈니랜드, 물을 테마로 만들어진 디즈니씨, 쇼핑 센터, 특급 호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전 세계 테마파크 입장객 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디즈니랜드 3위, 디즈니씨 4위)
비고	전화: +81-570-00-8632 (디즈니 리조트 인포메이션센터) 홈페이지: https://www.tokyodisneyresort.jp/

○ 도쿄 스카이 트리(Tokyo Sky Tree)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墨田押上1-1-2
운영시간	전망대: 10~21시 쇼핑센터: 10~20시 음식점: 11~20시
휴무일	휴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음.
명소소개	2012년 봄에 개장하였으며, 높이 634m로 전파탑으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비고	전화: +81-570-55-0634 홈페이지: http://www.tokyo-skytree.jp/

○ 아사쿠사(Asakusa)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台東區
운영시간	9~18시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옛 도쿄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서 깊은 센소지 인근의 나카미세 거리에는 전통적인 공예품 점과 길거리 음식이 있다. 19세기 중반에 문을 연 하나야시키 놀이 공원에는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카페가 있으며 강변의 쿠리츠 스미다 공원에서는 축제와 불꽃놀이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비고	홈페이지: https://e-asakusa.jp/kr/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此花島2丁目1-33
운영시간	8시 30분/9시 30분~21시/22시 ※운영시간이 매일 조금씩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람.
휴무일	연중 무휴
명소소개	세계 최고의 라이드 어트랙션과 쇼 등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있는 테마파크. 입장료는 7400엔임.
비고	전화: +81-570-20-0606 홈페이지: https://www.usj.co.jp/

○ 오사카 성(Osaka Castle)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區大阪城1-1

운영시간	오전9시 ~ 오후 5시 (천수각) / 입관은 4시 반까지
휴무일	12월 28일부터 1월1일까지
명소소개	오사카에 있는 성으로 히메지성, 쿠마모토 성과 함께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 오사카의 벚꽃 명소로 유명함
비고	https://www.osakacastle.net/english/

○ 후쿠오카 타워(Fukuoka Tower)

도시명	후쿠오카 시
주소	福岡市早良百道浜2丁目3番26
운영시간	9시 30 분 ~ 20시 (최종 입장 19:30)
휴무일	2021년 6월 28일, 29일
명소소개	후쿠오카시 모모치하마 해변에 세워진 높이 234미터의 관광타워로, 최상층 전망대에서는 후쿠오카 거리와 하카타만 등의 절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음
비고	https://www.fukuokatower.co.jp/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오카베야(Okabeya)

도시명	교토
전화번호	+81-75-541-7111
주소	京都市東山水寺門前2丁目
가격	2,000~2,500엔
영업시간	10시 30분~17시
휴무일	12/29,30 휴무
소개	교토의 전통있는 두부요리집 중 한 곳. 두부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비고	관광지인 키요미즈데라 바로 앞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 야바톤(Yabaton)

도시명	나고야시
전화번호	(052)252-8810
주소	名古屋市中大須 3-6-18
가격	돈까스 정식 : 약 1,300~1,600엔
영업시간	11:00 ~ 21:00
소개	나고야 명물 미소소스와 함께 나오는 돈가스
비고	오스칸논 역 3분 거리

◦ 이치란 신주쿠중앙동구점(ICHIRAN)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225-5518
주소	東京都新宿新宿3-34-11 ピースビルB1F・6F
가격	1,000엔 전후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연중 무휴
비고	돈코츠 라면점으로 도쿄 외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도시, 미국, 대만 등 81개 점포를 전개하고 있다. 위 신주쿠 중앙 동구점은 동일본 최대규모 점포로 좌우에는 칸막이가 있어 음식에 집중, "미식중 카운터"가 특징적이다. 맛은 돈코츠라면에서 보통 나는 강한 냄새가 없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내점하고 있다. URL: https://ko.ichiran.com/index.php

◦ 라브 긴자 그릇세점(Rabu)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562-5040
주소	東京都中央銀座 3-2-15 ギンザ・グラッセ 10F
가격	1,200~2,000엔
영업시간	점심: 11 ~ 15시 저녁: 17 ~ 20시
소개	흑돼지 샤브샤브가게로, 메인 메뉴(샤브샤브 정식) + 뷔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다.
비고	긴자 그릇세점: https://rabu-glasse.owst.jp/ 긴자 본점: https://ginza-rabu.owst.jp/ (본점은 런치 뷔페 메뉴 없음)

◦ 초시마루(Choushimaru)

도시명	도쿄 지역
전화번호	+81-3-5628-3322
주소	東京都江東9-6-9 (카메이도점)
가격	2,000엔 선
영업시간	주중 11시 30분~21시 30분 주말 11~22시
소개	일본 유명 회전초밥 체인점. 일반 저가격대 회전초밥 체인점보다 가격대는 있으나 본격적인 초밥을 맛볼 수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회전초밥집이지만 자리에서 직접 신선한 초밥을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로 관동지방에만 있는 체인점이다. 홈페이지: https://www.choushimaru.co.jp/menu/

○ 마츠바(Matsuba)

도시명	시즈오카
전화번호	+81-53-421-3714
주소	岡浜松市東下石田町982-1 (東名浜松IC入口)
가격	3,000~4,000엔
영업시간	11시~20시 30분
소개	일본의 우나기(장어) 전문점. 특산물인 우나쥬(장어덮밥)를 먹을 수 있다.
비고	주차장 80대까지 수용 가능함. 자리는 150석임.

○ 미즈노(Mizuno)

도시명	오사카
전화번호	+81-6-6212-6360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道頓堀1-4-15
가격	2,000~3,000엔
영업시간	11~22시

소개	오코노미야키의 본고지 오사카의 오코노미야키 전문점. 눈 앞에 철판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
비고	오코노미야키 체인점에서는 만들어주지 않고 직접 만들어야하는 곳도 있다.

◦ 미미우(MIMIU)

도시명	오사카시
전화번호	06-6231-5770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平野町4-6-18 御神社西裏
가격	우동 스키 3,960엔 (1인분)
영업시간	11:30~20:00 (코로나19로 변동 가능성 높음)
휴무일	연말연시 휴일
소개	우동스키 전문점으로 샤부샤부 형식으로 우동을 즐기는 전문 요리점 1925년 오픈하여 간사이 지방에만 14개의 지점이 있고 도쿄, 나고야 등에도 체인점이 존재함. 해당 가게는 오사카 혼마치 본점임
비고	https://www.mimiu.co.jp/honten/

◦ 오야마(Oyama)

도시명	후쿠오카
전화번호	+81-92-409-4286
주소	福岡市博多博多中央街1-1 JR博多シティB1F
가격	2,000~3,000엔
영업시간	11~23시
소개	후쿠오카 지역에서 유명한 모츠나베와 말 사시미를 먹을 수 있다.
비고	JR 하카타역과 연결되어 있다. 福岡以外に、東京都、神奈川、大阪府、宮崎にも支店あり。

◦ 해물주점 하지메노 잇포(Kaisen Izakaya Hajimeno Itpo)

도시명	후쿠오카시
전화번호	050-5595-2507
주소	福岡福岡市博多博多前3-7-15 庄野ビル 1F
가격	점심 : 참깨 고등어회 정식 1,980엔 저녁 : 잇포나베코스 + 노미호다이 5,500엔

영업시간	오전 11:30~오후 11:00
소개	후쿠오카 지역에서 유명한 참깨 고등어회(고마사바) 먹을 수 있다.
비고	하카타역에서 도보 5분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레스토랑정보사이트 타베로그, 구루나비 등>

- 한국식당

◦ 고궁 삼계탕()

도시명	기타규슈
전화번호	+81-93-512-3356
주소	福岡北九州市小倉北魚町1-4-16
가격	1,000엔 선
영업시간	11~14시 17시 30분~22시
소개	간판메뉴는 삼계탕임.

◦ 백제()

도시명	나고야
전화번호	+81-52-731-9886
주소	愛知名古屋市千種 仲田 2-19-16
가격	4,000~5,000엔
영업시간	11시30분~24시(일요일은 23시까지)
소개	불고기, 냉면 등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술집 겸 밥집이다.
비고	서비스료 210엔

◦ 요프의 왕 돼지 소금구이(Yopunooubutashioyaki)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50-5571-5830
주소	東京都新宿大久保 1-16-21
가격	3,500엔 선

영업시간	11~24시
소개	주로 삼겹살을 포함한 한국요리를 판매. 좌석수는 120석으로 단체객도 이용 가능하다.
비고	카드사용 가능

◦ 하누리 ()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50-3491-0348
주소	東京都新宿歌舞伎町1-18-9 WaMall 9F
가격	4,000엔 선
영업시간	12~5시(일요일은 23시까지)
소개	치즈 닭갈비 등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비고	일본 유명 프로그램에 소개된 가게임.

◦ 온돌 본점(Delica Ondoru)

도시명	도쿄
전화번호	+81-3-3205-5679
주소	東京都新宿百人町1-3-20
가격	1,000~3,000엔
영업시간	10~20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갈비, 닭갈비, 불고기, 치킨, 찌개, 비빔밥, 등 다양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비고	홈페이지: https://delicaondoru.com/

◦ 꼬끼오()

도시명	오사카
전화번호	+81-6-6151-2654
주소	大阪府大阪市北梅田3-1-3 ルクア大阪B2
가격	2,000~4,000엔

영업시간	11~24시
소개	양념치킨, 치즈 닭갈비 등을 먹을 수 있는 오사카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 식당

○ 돈마니(Donmani)

도시명	오사카시
전화번호	06-6311-2622
주소	〒530-0057 大阪府大阪市北曾根崎2丁目520 お初天神ビル 西館 2F3F
가격	프리미엄 코스 -삼겹살 치즈 닭갈비 포함 3500엔
영업시간	11:30~23:30
휴무일	없음
소개	한국 삼겹살, 닭갈비 등을 즐길 수 있는 한식 요리집
비고	https://www.instagram.com/ton_many/

○ 부산정 하카타 본점(BusanTei Hakata Honten)

도시명	후쿠오카시
주소	1 7 1 7 3 丁目, 1 7 博多前 博多 福岡市 福岡 812-0011
가격	1000엔~5000엔
영업시간	오전 11:30 ~ 오전 12:00
휴무일	없음
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등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레스토랑정보사이트 타베로그, 구루나비 등>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산코인 호텔(Sancoinn Grande)

도시명	나고야
주소	古屋市中村名3丁目21番7
전화번호	052-564-1135

홈페이지	https://www.sanco-inn.co.jp/grande-nagoya/
숙박료	8,000엔부터
소개	나고야역에서 도보 12분, 무역관에서 도보 3분 거리 비즈니스 호텔

◦ 케이큐 EX 호텔 시나가와(Keikyu EX hotel Shinagawa)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港高輪3-13-3
전화번호	+81-3-6743-3910
홈페이지	https://www.keikyu-exhotel.jp/hotel/shinagawa/
숙박료	6,000엔 이상
소개	도쿄지역 비즈니스 호텔 중 가장 평이 좋다. 하네다 공항을 지나는 케이큐선역 앞에 호텔이 있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하다.

◦ 신주쿠 워싱턴 호텔(Washington Hotel Shinjuku)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新宿西新宿3-2-9
전화번호	+81-3-3343-3111
홈페이지	https://washington-hotels.jp/shinjuku/
숙박료	6,000엔 이상
소개	신주쿠역에서 도보 8분, 신주쿠교엔 정원과 메이지 신궁에서 2km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 Hotel Vischio 오사카(Hotel Vischio Osaka)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北芝田2丁目4番10
전화번호	+81-6-7711-1111
홈페이지	https://www.hotelvischio-osaka.jp/
숙박료	7,000엔 이상
소개	오사카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 호텔 킨키(Hotel Kinki)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530-0027 大阪府大阪市北堂山町 1 7 8
전화번호	06-6312-9117
홈페이지	http://hotelkinki.com/
숙박료	4000엔 이상
소개	오사카 우메다 중심지에 위치한 호텔로 편리한 접근성과 깔끔한 시설을 보유
비고	JR '오사카 역'에서 도보 7분 한큐 '오사카 우메다 역'에서 도보 5분 Osaka Metro 미도스지 선 '우메다 역', 다니마치 선 '히가시우메다 역'에서 도보 10분 Osaka Metro 다니마치 선 '나카자키초 역'에서 도보 4분

○ 호텔 FORZA(Hotel FORZA)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福岡市博多博多中央街4-16
전화번호	+81-92-473-7111
홈페이지	https://www.hotelforza.jp/
숙박료	6,000엔 이상
소개	후쿠오카의 중심 하카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 호텔 와사비(HOSTEL WASABI)

도시명	교토
주소	京都府京都市上京新白水丸町456-3
전화번호	+81-75-276-0828
홈페이지	http://guesthousejp.com/kyoto/
숙박료	1,700엔 이상
소개	저렴한 가격으로 교토의 다다미방에서 숙박할 수 있다.

○ 시탄호스텔(CITAN)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中央日本橋大馬町15-2
전화번호	+81-3-6661-7559
홈페이지	https://backpackersjapan.co.jp/citan/
숙박료	3,000엔 이상
소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쿄 중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방을 공유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한 개인실도 있다. 2017년 오픈.

○ 언플랜 카구라자카(Unplan Kagurazaka)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新宿天神町23-1
전화번호	+81-3-6457-5171
홈페이지	https://unplan.jp/kagurazaka
숙박료	2,200엔 이상
소개	카구라자카역에서 도보 3분, 관광에 편리한 도쿄 중심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일본 잡화점, 일식·양식 등 레스토랑이 많다. 도미토리룸, 프라이빗 패밀리룸, 프라이빗 더블룸 등 3 종류의 객실이 있다.

○ 후쿠오카 하나 호스텔(Fukuoka Hana Hostel)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福岡市博多上川端町4-213
전화번호	+81-92-282-5353
홈페이지	https://fukuoka.hanahostel.com/index-jp.php
숙박료	2,800엔 이상
소개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조금 더 돈을 내면 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방에 묵을 수 있다. 인기가 높은 게스트하우스로 예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 지역에 대한 위험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 1단계 남색 경보(여행 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현재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으며, 그 외 후쿠시마 지방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되어 있다.

○ 일본 전역 :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 발령(기간 2020.03.23. ~ 2021년 6월 현재 시행 중)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발령(2021년 6월 현재 지속 시행중)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상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구급차를 불러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다음은 2차 피해와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차고 차량을 이동한다. 경찰 신고는 필수사항이며 가해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으나 피해자도 신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차량 번호, 근무처,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상황을 기록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현장 처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된 경우 우선은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여권분실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 후 사진을 준비하여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현지에서 발급하는 시간이 없을 경우 대사관의 여행증명서를 통해 귀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2장, 귀국 항공편 e-ticket(여행증명서 발급의 경우)

○ 수수료

- 여권의 경우, 5,500엔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여행증명서의 경우, 110엔

3) 응급 전화번호

- 소방서: 119

- 경찰서: 110

- NTT의 재해용 전언 다이얼 서비스: 171

- 주일 한국대사관: +81-3-3452-7611/9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택 임차 개요

○ 사전 검색

-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 희망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물건을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간 및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도일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 물건을 물색해 보거나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 일본만의 부동산 문화

- 부동산 업자에게 희망 임대료, 면적, 교통수단 등을 알려주면 구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맨션을 소개해 준다. 집을 빌릴 때는 집세 이외에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시키킨(敷金, 보증금), 레이킨(礼金, 사례금), 부동산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료 등이 필요하며 이것을 모두 계산하면 집세의 4~6개월분이 된다. 또한, 계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한데, 외국인의 경우 필수 사항으로 보증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은 집세의 0.5개월분이 된다.

- 다만, UR 임대주택(UR 도시기구의 임대주택)의 경우엔 시키킨 이외의 레이킨, 갱신료, 보증인이 불필요하다. UR임대주택은 원룸부터 가족용의 주거 공간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므로 선택의 폭도 넓으며, 또한 신축 이외의 주택 대부분에 관해서는 무추첨 선착순으로 입주 가능하다.

○ 부동산 계약 예시(야짱(월세) 10만 엔, 입주일 4월 15일, 보증 회사 미사용으로 가정)

- 야짱(월세) 선금: 4월분 50,000엔 + 5월분 100,000엔 총 150,000엔
- 레이킨: 월세의 2개월 치에 해당하므로 200,000엔
- 시키킨: 월세의 2개월 치에 해당하므로 200,000엔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의 1개월 치 100,000엔
- = 총 소요 금액: 650,000엔

○ 방문 실사

- 부동산의 조건에 따라 레이킨과 시키킨 3개월로 높게 설정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는 사전에 부동산을 통해 협의하면 대부분 2개월분 이하로 변경 가능하다. 'CHINTAI' 등의 부동산 정보지 혹은 인터넷상의 임대전문 웹사이트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물건과 시세 등을 파악한 후에 부동산업자와 접촉, 희망 물건과 추천 물건에 대해 폭넓게 한 번에 방문실사(見, 나이켄)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 역과의 거리

-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거리 80m를 도보 1분으로 환산하게 돼 있는데, 횡단보도에서의 신호대기 시간 등은 감안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2~5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보 15~20분 거리의 물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보 15분으로 표기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동일 수준의 물건이어도 역에서의 거리가 5분 정도 차이 난다면, 월 임대료 역시 5,000~15,000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주택 임차 시 주의사항

○ 입지여건

- 도로나 철로 인근의 경우, 의외로 소음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특히 야간) 유의해야 하며, 다이에이,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 등 대형 슈퍼가 인근에 있는 경우가 물가가 저렴하다. 부근에 유흥가가 있을 경우 소란스럽고 사고도 많다. 건축 연수가 오래된 경우, 임대료는 싸지만 입주 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차고 증명

-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차고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주차장도 별도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며, 도쿄는 월 30,000~50,000엔 전후, 기타 지역은 월 15,000~35,000엔 정도이다. 자동차 등록 시 차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차고 증명서를 차고지(주차장)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차장에 대한 복비(통상 1개월 치)도 지불해야 한다.

◦ 협상 내용

- 임대 조건 중 보증금은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에어컨이 방마다 부착돼 있지 않으면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월 5,000엔 정도 임차료를 올려주고 1대를 추가로 달아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 협상을 해야 한다. 거주 기간을 감안해서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어느 쪽이 이익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에어컨이 설치돼 있을 경우는 에어컨이 집의 설비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설비일 경우 고장 시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

◦ 외국인 계약 가능 여부

- 외국인(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해 두고, 회사 계약(법인 계약이라고도 하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니라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이 되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통보해 주면 집 구하기가 수월하다. 일본인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실 현지 직원의 양해를 얻어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

◦ 차후 문제 대비

- 통상 부동산업자만 만나고 집주인과 대면할 기회가 없으므로 집을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부동산업자에게 연락해 두어야 한다. 퇴거 시 원상 복구비를 물어야 하므로, 못 구멍, 벽의 흠집, 창문의 알루미늄 창틀의 하자 등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일본의 임대 주택의 경우, 위치, 입지와 함께 조망, 전경 등이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체로 고층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전화

가까운 NTT 전화국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일본 전국의 기본 통신망은 한국의 KT에 해당하는 NTT가 관리하고 있다. 단,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으로 나뉘어 있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춰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같은 플랜이라도 요금은 NTT 동일본 쪽이 약간 저렴). 최근에는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코지마, 노지마, 야마다 전기 등 일본의 대형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전화기 코너 옆에 유선회선 가입 코너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직접 가서 문의하는 것도 좋다. 단, 계약을 위해서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통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전화 신청 시에 인터넷 회선을 함께 신청하면 기본요금이 저렴해지는 요금제가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신청방법: NTT(116)에 연락해서 가입(거주지에 따라 전화 회선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전압/플러그

전압은 100V, 주파수는 50/60Hz를 겸용하며 플러그는 A형 2구 콘센트로, 한국의 220V, 60Hz, C형 2구 콘센트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제품의 일본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0V 제품의 경우 변압기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과 다른 50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역(주로 동일본)에서는 한국제품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제품은 50Hz/60Hz 겸용 제품이 많으나 사용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식수

기린, 산토리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한 편으로 100엔 전후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치할 경우나 요리를 할 경우에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한편 국토교통성의 자료"2018년도 일본 수자원 현상에 대해"에 의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을 포함해 10개국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일본의 수돗물은 고도의 정수시설을 바탕으로 수질이 높아 "음용불가"라는 표기가 없는 한 마셔도 무방하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 구입 시, 흥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딜러를 돌아보고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메이커 직계의 판매망이 판매 회사별로 나뉘어 있어 일부 메이커의 경우, 원하는 차종이 있는 전문 매장에 가야 구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요타의 전문매장은 도요타, 카로라, 도요팻, 넷츠, 렉서스(5종류) 등이다. 메이커 직계 중고차 전문 매장이 있으며, 중고차임에도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 많으므로 구입 시 문 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타 추가적인 금액도 고려해야 한다.

1) 필요서류

-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거주하는 시구정촌(市町村)에서 발급)
- 인감 및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 급여소득의원천징수표(대출이 필요할 경우)
- 보증인(대출을 받아 첫 구입 시)
- 차고증명서(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 차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신청서
- 보관장소 사용승낙증명서
- 보관장소 소재지, 배치도
- 신분증
- 운전면허증

2) 각종 세금

○ 차량 가격 이외에도 자동차 취득세와 소비세가 부과
-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중고차를 불문하고 구입했을 때의 취득 가격에 과세되는 것으로, 자가용은 3%, 영업 차량과 경자동차는 2%가 세액이 된다. 또한 취득 가격 50만 엔 이하는 면세이다. 저공해 차 등에 대해서는 특례조치가 존재하며, 소비세가 10%로 상승하면 자동차 취득세는 폐지되고 환경성능비율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 중량세와 자동차세 (경차는 경자동차 세)가 있다. 자동차 중량세는 자동차 무게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0.5톤당 연간(경차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납세자는 차량 검사 시에 유효 기간 분을 선납한다. 자동차세(경차는 경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고 중간에 폐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간만큼 분이 반환된다. 그러나 경차 세금은 월할 제도는 없다.

○ 차고 증명 및 차량 주차비

- 차를 세워둘 곳이 있다는 차고 증명이 없으면 일본에서는 차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준비하거나 차를 구매할 때 딜러에게 대행 을 맡긴다.
- 일본은 교통 규칙이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차량 주차비 월 30,000-50,000엔이 소요된다.

차량가격

한국에서도 익숙한 일본 자동차 가격은 일반적인 모델로 봤을 때 250~500만엔 정도이다.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인 도요타, 닛산, 스즈키, 혼다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도요타: <https://toyota.jp>
- 닛산: <http://www.nissan.co.jp/>
- 스즈키: <http://www.suzuki.co.jp/>
- 혼다: https://www.honda.co.jp/auto/?from=navi_header

운전면허 취득

일본의 교통법은 한국과 달라 철길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차할 것,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유턴 가능, 청색 신호 시 직진뿐만 아니라 좌·우회전도 가능 등의 차이점이 있다. 운전석도 한국과 반대이다.

1) 면허 취득 이외의 방법

- 국제면허증
 - 한국인의 경우 국제면허증으로 최대 1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일본 면허를 따거나 전환해야 한다.

2) 면허 취득

- 외국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 운전면허증은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수속은 거주지 근처의 운전면허 센터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다.
 -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시에는 외국 면허증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 통산해 3개월 이상 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여권 등 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또한 외국 면허증이 유효기간 이내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병력, 사진, 주민표 혹은 여권,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혹은 재류카드, 외국 면허증, 면허증 일본어 번역본, 수수료 등이 필요함.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1) 일본 주요 은행

- 미쓰비시도쿄UFJ은행(三菱東京UFJ): 일본 최대 규모 은행
- 유초은행(ゆうちょ): 한국의 우체국은행과 비슷하다. 우정민영화로 인해 2006년 우체국과 분리되어 유초은행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 일본 내 3위 은행으로 일본 재벌기업인 미쓰이그룹(사쿠라은행) 과 스미토모 그룹(NEC의 모회사)의 스미토모 은행이 합병

○ 미즈호은행(みずほ): 일본 최초의 은행인 제1 국립은행이 전신으로, 제일권업은행(제일국립은행), 후지은행, 일본흥업은행의 3개 은행이 합병되어 2002년 발족

2) 한국계 은행

한국계 은행으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 주요 은행의 지점이 존재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SBI은행이라는 일본 은행법에 따라 현지 은행업을 전개하고 있다.

3) 기타 참고사항 : 라쿠텐은행, 세븐은행 등 기존 금융업 이외 기업의 은행업 진출, 무점포 온라인 운영 등을 시행 중

계좌 개설방법

1) 일본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주의사항

○ 체재 기간 : 단기체제(90일 이내)의 경우 일본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장기체재비자(90일 이상)를 소지하고 있어도 실제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주소 : 사는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이유를 자세하게 묻거나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집 근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준비물

- 본인확인서류 : 운전면허증, 재류카드 등 본인의 얼굴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 은행에 따라 사원증, 학생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및 준비 필요
 - ** 재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인감(도장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사인으로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도 가능)

3) 추천은행

유초은행은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쉬운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체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개설이 가능하나 입출금 및 저금만 가능하고 송금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송금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나고야 국제 중고등학교 (名古屋際中高等学校)

도시명	나고야
-----	-----

커리큘럼	중고 연계 코스와 국제교양학과 3학년 선택과목으로 모의유엔 활동을 하는 등 특수교육으로 국제인재를 육성한다.
학비	입학금 220,000엔 수업료 47,900엔/월
홈페이지	http://www.nihs.ed.jp/

◦ 나고야 인터내셔널 스쿨(NIS)

도시명	나고야
커리큘럼	유치부, 초, 중, 고등부로 구성. 고등학교 졸업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학비	• ELC (Preschool & Kindergarten) ¥1,750,000 • Elementary School (Grades 1-5) ¥2,185,000 • Secondary School (Grades 6-10) ¥2,525,000 • Secondary School (Grades 11-12) ¥2,590,000
홈페이지	https://www.nis.ac.jp

◦ 도쿄도립 국제 고등학교 (東京都立際高等学校)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일반 국제코스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코스로 구분. 일반과목과 더불어 국제이해에 관한 수업을 진행한다.
학비	수업료 118,800엔(취학지원금제도 인정자는 면제) 학년별 약 10만엔 정도의 학비 발생
홈페이지	http://www.kokusai-h.metro.tokyo.jp/index.html

◦ St.Mary'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남학교로, 유치원 및 초, 중 고등 과정을 보유, 교육언어는 영어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학비	기본 2,300,000엔, 학년에 따라 추가요금 존재
홈페이지	https://www.smis.ac.jp/
비고	가톨릭계 학교

◦ 센리 오사카 인터내셔널스쿨 (SIS)

도시명	오사카
-----	-----

커리큘럼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정 도입 학교
학비	학비(수업료 및 기타 교육비) 1,240,000엔 입학금 300,000엔
홈페이지	https://www.kwansei.ac.jp/sis/sis_016613.html

○ 후쿠오카 인터내셔널스쿨 (FIS)

도시명	후쿠오카
커리큘럼	초, 중, 고등부로 구성.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하며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취득 가능
학비	3-4세 : 1,349,000엔/년 유치원 - 5학년 : 1,372,000엔/년 6-8학년: 1,482,000엔/년 9-10학년: 1,593,000엔/년 11-12학년: 1,657,000엔/년
홈페이지	https://www.fis.ed.jp/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 현지학교

○ 아이치현립 아사히가오카고등학교 (愛知立旭丘高等学校)

도시명	나고야
커리큘럼	보통과와 미술과가 있음.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요소 도입 등 문부과학성 슈퍼 글로벌 하이스쿨 (SGH)로 지정
학비	입학금 5,650엔 수업료 118,800엔(연간)
홈페이지	http://www.asahigaoka-h.aichi-c.ed.jp/

○ 동경한국학교 (東京韓校)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학비	중등부 1학년 기준으로 보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쳐 266,900엔 정도
홈페이지	http://www.tokos.ed.jp/smain.html
비고	한인학교

○ 사립 후타바중고등학교 (私立雙葉中高等学校)

도시명	도쿄
커리큘럼	일본인 현지학교이지만 입시를 봐야 입학이 가능한 사립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계 교육으로 학년에 구속받지 않는 수업과 고등학교 입시를 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다.
학비	중학교 1학년 기준 초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1,012,800엔(2021년도)
홈페이지	https://www.futabagakuen-jh.ed.jp/
비고	카톨릭학교, 여중여고

○ 금강학원 (金剛園)

도시명	오사카
커리큘럼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구성. 동경한국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징
학비	○ 연간 수업료 - 초등부: 120,000엔 - 중등부: 192,000엔 - 고등부: 437,600엔
홈페이지	http://www.kongogakuen.ed.jp/
비고	한인학교

○ 후쿠오카현립 후쿠오카고등학교 (福岡立福岡高等学校)

도시명	후쿠오카
커리큘럼	후쿠오카 지역 명문 고등학교.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따른다. 특색있는 교육으로는 캠프 브릿지 대학과의 교류 등이 있다.
학비	수업료 9,000엔 등
홈페이지	http://fukuoka.fku.ed.jp/intro/pub/list.aspx?c_id=87

<자료원 : 각 학교 홈페이지>

마. 병원

○ 나고야시립대학병원 (名古屋市立大病院)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瑞瑞町川澄1番地
전화번호	+81-52-851-5511
진료과목	종합병원

○ 게이트타워 스완치과 (ゲートタワースワン科)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中村名1-1-3 JRゲートタワー 26F
전화번호	+81-52-562-1700
진료과목	치과

○ 우에노 내과 클리닉 (うえの科クリニック)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熱田八番2丁目2 - 17
전화번호	+81-52-659-1501
진료과목	내과

○ JR 도쿄 종합 병원 (JR東京合病院)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谷代木2-1-3
전화번호	+81-3-3320-2210
진료과목	종합병원

○ 김치과 의원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新宿歌舞伎町2-41-8 植木ビル201
전화번호	+81-3-3207-8461
진료과목	치과

비고	한국어 대응 가능
----	-----------

○ 치요다구 휴일 응급 진단소 (千代田休日急診療所)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千代田九段北1丁目2-14 千代田保健所
전화번호	+81-3-5211-8202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비고	휴일 영업

○ 에바라 병원 (荏原病院)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大田東雪谷4-5-10
전화번호	+81-3-5734-8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도쿄도보건의료공사 한국어 대응 가능

○ 오사카 시립 종합 의료센터 (大阪市立合療センター)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市都島都島本通2-13-22
전화번호	+81-6-6929-1221
진료과목	종합병원

○ 아이치과 나가호리바시원 (あい科 長堀橋院)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南船場 1 - 10 - 12 ラインビルド 南船場
전화번호	+81-6-6267-0102
진료과목	치과
비고	22시까지 진료

○ 고토 내과 클리닉 (後藤科クリニック)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谷町1-3-5 アンフィニィ天橋2F
전화번호	+81-6-6946-8778
진료과목	내과

○ 오사카 중앙 병원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530-0001 大阪府大阪市北梅田 3 丁目 3 −30
전화번호	06-4795-550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www.osaka-centralhp.jp/

○ 규슈대학병원 (九州大病院)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東馬出3-1-1
전화번호	+81-92-641-1151
진료과목	종합병원

○ 하타노 치과의원 (はたの科院)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福岡市博多比町 5 - 2 野原ビル 1 F
전화번호	+81-92-481-2418
진료과목	치과

○ 하카타 히노키 클리닉 (博多ひのきクリニック)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博多博多南1丁目8-34 博多 F R ビル7階
전화번호	+81-92-477-7216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건강검진

비고	한국어, 중국어 대응 가능
----	----------------

○ 규슈종합진단클리닉 (九州合診クリニック)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博多博多前3-25-21 博多前ビジネスセンター1F
전화번호	+81-92-482-1600
진료과목	내과

○ 유 멘탈클리닉(ゆうメンタルクリニック)

도시명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시
주소	島市前原中央2-5-18ビル2階
전화번호	092-332-9524
진료과목	심장내과 정신과
비고	한국어 진료 및 심리상담 대응 가능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나고야 사카에 미츠코시 백화점 (MITSUKOSHI)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中3-5-1
홈페이지	https://mitsukoshi.mistore.jp/store/nagoya/index.html
비고	도쿄 니혼바시에 본점을 두는 미츠코시 백화점의 나고야 분점

○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渋谷2-24-12
홈페이지	https://www.shibuya-scramble-square.com/
비고	도쿄 관광명소 시부야에 신규 건립된 쇼핑몰로, 쇼핑, 레스토랑과 함께 옥상 전망시설을 통해 도쿄 전경을 관람 가능하다.

○ 도쿄 소라마치 (Tokyo soramachi)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墨田押上一丁目1番2
홈페이지	http://www.tokyo-solamachi.jp/
비고	도쿄 스카이트리 부근에 위치한 쇼핑몰로 관광과 쇼핑을 함께 할 수 있다.

○ RAYARD Miyashita Park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谷神宮前6-20-10
홈페이지	https://mitsui-shopping-park.com/urban/miyashita/
비고	시부야 옥상공원으로 유명한 쇼핑몰. 럭셔리 브랜드, 스트리트 브랜드, 음식점, 카페 등이 많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 오사카 타카시마야 (大阪タカシマヤ)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市中央難波5丁目1番5
홈페이지	https://www.takashimaya.co.jp/osaka/
비고	오사카 난바지역의 랜드마크 겸 대규모 쇼핑몰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 아베노 하루카스 킨테쓰 백화점

도시명	오사카시
주소	大阪市阿倍野阿倍野筋1-1-43
홈페이지	https://www.abenoharukas-300.jp/index.html
비고	일본 최대의 빌딩, 전망대, 미술관 등 복합 관광 단지임

○ 커널시티 하카타 (キャナルシティ博多)

도시명	하카타
주소	福岡福岡市博多住吉1-2
홈페이지	https://canalcity.co.jp/

비고	후쿠오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중앙광장에서는 분수 쇼를 볼 수 있다.
----	--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 식품점

○ 세이쵸 이시이 (成城石井)

도시명	나고야지점
주소	名古屋市 中村 名1-1-4 名古屋うまいもん通り (나고야 지점)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수입식품
비고	전국구 슈퍼마켓. 다소 가격대가 높은 수입식품도 판매.

○ 이토 요카도 (Ito Yokado)

도시명	오사카지점
주소	大阪府 大阪市 阿倍野 阿倍野筋1丁目6-1 (아베노 지점)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세븐일레븐 계열사. 본사는 도쿄.

○ 이온(AEON)

도시명	치바 마쿠하리신도심점
주소	千葉 千葉市 美浜 豊砂1-1 他(마쿠하리신도심점, 도쿄 지역 최대 규모)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및 생활용품
비고	일본 국내 175개 점포가 있음.

○ 마루쇼쿠(マルショク)

도시명	후쿠오카지점
주소	福岡市 博多 博多南2-8-16(하카타점)
취급 식료품	각종 식료품
비고	서일본 지역 슈퍼마켓

- 기타 편의시설

○ 나고야 골프 클럽 (名古屋ゴルフ部)

도시명	나고야
주소	愛知愛知郡東町大字和合ドンドロ35
홈페이지	http://nagoyagolfclub-wago.com/
소개	나고야 인근에 소재한 골프장

○ 나고야 스포츠 센터 (名古屋スポーツセンター)

도시명	나고야
주소	名古屋市中門前町1-60
홈페이지	http://nsc-osuskate.jp/
소개	나고야에 소재한 스케이트장
비고	아사다 마오 선수 등 일본의 유명 피겨 선수들의 연습장

○ 도쿄 다츠미 국제 수영장 (東京辰巳際水泳場)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江東辰巳2丁目8-10
홈페이지	https://www.tef.or.jp/ttisc/
소개	도쿄에 소재한 수영장
비고	국제 경기가 열리는 유명한 수영장

○ 도쿄 국제 골프 클럽 (東京際ゴルフ部)

도시명	도쿄
주소	東京都町田市下小山田町押沼1668番地1
홈페이지	http://www.kokusai-net.co.jp/tkgc/
소개	도쿄에 소재한 골프장

○ 메이지스포츠프라자 중앙옥내풀(明治スポーツプラザ中央屋プール)

도시명	오사카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島之2丁目7-8
홈페이지	https://meijisp.jp/chuo-pool/
소개	오사카에 소재한 수영장

○ 코가 골프 클럽 (Koga Golf Club)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古賀市鹿部1310-1
홈페이지	http://www.kogagc.co.jp/
소개	후쿠오카에 소재한 골프장

○ 스포츠 클럽 NAS 하카타 (スポーツクラブNAS博多)

도시명	후쿠오카
주소	福岡市博多東那珂1丁目14-46 フォレオ博多 (クイズモール博多) 3F
홈페이지	https://www.nas-club.co.jp/hakata/
소개	후쿠오카에 소재한 피트니스센터

<자료원 : 각 시설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정	2022-01-01	
성인의 날	2022-01-10	매년 1월 둘째 주 월요일
건국기념일	2022-02-11	
天皇誕生日(일왕탄생일)	2022-02-23	매년 2월 23일(2020년의 경우 일요일로, 월요일로 대체휴일 적용)
춘분의 날	2022-03-21	매년 춘분
쇼와의 날	2022-04-29	※골든위크 시작(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이 모여있는 장기 휴일)

헌법기념일	2022-05-03	골든위크
녹색의 날	2022-05-04	골든위크
어린이 날	2022-05-05	골든위크
바다의 날	2022-07-18	7월의 제 3 월요일
산의 날	2022-08-11	
경로의 날	2022-09-19	9월의 제 3 월요일
추분의 날	2022-09-23	매년 추분
스포츠의 날	2022-10-10	
문화의 날	2022-11-03	
근로감사의 날	2022-11-23	

〈자료원 : 일본 내각부 국민의 휴일 페이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도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東京都千代田丸の3-4-1 新際ビル 9F(〒100-0005)
- 전화번호: +81-3-3214-6951 (FAX: +81-3-3214-6950)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JR 유라쿠초역 국제포럼 출구/ 도에이 미타센 히비야역 B3 출구/ 도쿄 메트로 유라쿠초센 유라쿠초역 D3 출구

나리타 공항에서 오는 법

1) 리무진버스 이용 도쿄역 하차

- 도쿄역까지의 약 75분 소요, Airport Limousine Bus : 1인 2,800엔(편도), 10~20분 간격, Airport Bus TYO-NRT : 1인 1,300엔(편도), 20분 간격
- 공항 입국장을 나오면, 정면에 공항 리무진 버스 매표소
- 동경역에서 하차하신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무역관 이동 가능, 택시비는 약 660~1,000엔 소요

2) JR나리타익스프레스(JR NARITA EXPRESS) 이용 경우

(http://www.jreast.co.jp/kr/nex/index.html?src=t_info)

- 약 50분 소요, 1인 약 3,000엔(편도), 매시간별 2~3대 운행
- 입국장을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가면 JR역으로 가는 안내 표지 확인
- 지하 2층 전철역에서 JR 이동, 창구에서 유락초(有楽町驛)역까지 승차권 구매
- 도쿄역 하차, 반드시 야마노테선으로 환승
- 야마노테선(山手線 Yamanote-Line 연두색 라인)의 시나가와(品川 Shinagawa) 방면 전철을 탑승, 한 정거장인 유락쿠초역(有楽町驛)에서 하차
- 국제포럼출구 (진행방향 맨 뒤쪽 출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가전판매점 빅카메라(BIC CAMERA)를 따라 직진하면 첫 교차로의 사선방향에 보이는 미쯔이스미토은행(三井住友은행) 입주 건물에 신국제빌딩

하네다 공항에서 오는 법

1) 모노레일 이용 경우

- 약 40분 소요, 660엔(편도)
-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모노레일 승강장이 있는 승차장으로 이동(동일층). 하마마츠초 행을 타고 종점 하마마츠초역에서 하차
- 하마마츠초역에서 JR 야마노테선(山手線) 도쿄 방면 탑승 후 유라쿠초역 하차

2) 케이큐(京急線) 전철 이용

- 약 40분 소요, 470엔(편도), 5~10분 간격 운행
-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케이큐 전철 시나가와 방면 개찰구 이용, 시나가와행 열차 탑승
- 시나가와역에서 JR 야마노테선(山手線) 도쿄 방면 탑승 후 유라쿠초역 하차

3) 택시

- 약 30분 소요(도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000엔 정도
- 하네다공항 국제선 도착로비에서 탑승 후 국제포럼 정문 현관 앞에서 하차

○ 도쿄 IT 지원센터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東京都千代田霞が3-2-5 霞がビル5F(〒100-6005)
- 전화번호: +81-3-5501-2847 (FAX: +81-3-5501-2850)
- 홈페이지: <http://www.kotrait.or.jp/>

공항-무역관 이동

마루노우치센, 치요다센, 히비야센 가스미가세키역 A13 출구/ 긴자센 토라노몬역 11번 출구

○ 도쿄 수출 인큐베이터(BI)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東京都港新橋6-14-3 御成門PREX 8階(〒105-0004)
- 전화번호: +81-3-5425-7047 (FAX: +81-3-3432-2075)
- 홈페이지: http://www.kotra.or.jp/bi/BI_Center_top.html

공항-무역관 이동

미타센 오나리몬역 A4번 출구

○ 오사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安土町2-3-13 大阪際ビルディング20階(〒541-0052)
- 전화번호: +81-6-6262-3831 (FAX: +81-6-6262-4607)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미도우스지센(御堂筋線) 혼마치역(本町) 3번 출구 · 주오센(中央線) 사카이스지혼마치역(堺筋本町) 17번 출구

- 전철 이용 시 (약 1시간 소요, 편도 1,160엔)
- (공항 → 난바) 간사이국제공항 2층에서 전철 난카이선(南海線) RAPIT호를 타고 종점인 난바역(難波) 하차
- (난바 → 혼마찌) 난바역(難波)에서 지하철 미도스지선(御堂筋) 센리추오(千里中央)방면 열차를 타고 혼마찌역(本町) 하차
- (혼마찌 → 무역관) 3번 출구를 나와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흰색 건물 오사카 국제빌딩의 20층 오사카무역관 도착
- * 대한항공 건물→ MetLife 건물→1층 Family Mart가 있는 빌딩으로 도착

- 택시 이용 시 (약 40~50분 소요, 요금 14,000~16,000 엔)
 -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로비 앞에서 탑승 후 혼마찌 국제빌딩 앞에서 하차
- 공항 리무진 이용 시 (제1터미널 기준, 환승 필요, 1시간 이상 소요)
 - 오사카역행 5번 탑승장(약 50분, 편도 1,600엔) - 신한큐호텔 하차 - 택시 이용 또는 미도스지선 우메다역에서 혼마찌역 이동
 - 난바행 11번 탑승장(약 50분, 편도 1,100엔) - 난바 OCAT 하차 - 택시 이용 또는 미도스지선 남바역에서 혼마찌역 이동
 - * 리무진 버스표 : <https://www.kate.co.jp/>

○ 후쿠오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福岡福岡市博多博多前3-2-1 日本生命博多前ビル11F(〒812-0011)
- 전화번호: +81-92-473-2005 (FAX: +81-92-473-2007)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JR 하카타역 하카타 출구

※ 후쿠오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자동차로 15분 정도 소요되어 공항-도심 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무역관은 하카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이외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 택시
 - 이용방법: 국제선 청사 앞 택시 승차장에서 탑승
 - 소요시간: 약 15분
 - 요금: 약 1,450엔(2021. 5. 기준)
- 버스
 - 이용방법: 국제선 청사 앞 2번 정류장에서 하카타역행(博多行き) 버스 탑승→ 하카타 버스터미널 (博多バスターミナル) 하차 → 도보 7분
 - 소요시간: 약 25분
 - 요금: 260엔(2021. 5. 기준)
- 지하철
 - 이용방법: 국제선 청사 앞 1번 정류장에서 공항 연락 버스 탑승(무료) → 국내선 터미널 하차 → 지하철 후쿠오카공항역(福岡空港) 이동 → 쿠코센(空港線) 탑승(중점이므로 행선지 무관) → 하카타역(博多) 하차 (2 정거장) → 하카타 출구(博多口) 도보 5분
 - 소요시간: 약 30분
 - 요금: 260엔(2021. 5. 기준) 도보 5분
 - 소요시간 약 30분, 요금 260엔

○ 나고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愛知名古屋市中村那古野1-47-1 名古屋際センタービル 23F(〒450-0001)
- 전화번호: +81-52-561-3936 (FAX: +81-52-561-3945)
- 홈페이지: <http://kotra.or.jp/>

공항-무역관 이동

사쿠라도오리선 국제센터역 2번 출구 / JR 나고야역 사쿠라도오리 출구

1) 택시

- 중부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탑승 가능
- 운전기사에게 다음 주소를 제시하고 무역관으로 이동
 - * 名古屋中村那古野1丁目47-1名古屋際センタービル
- (Nagoya International Center Bldg, 47-1, 1-Chome, Nagono, Nakamura
- Ku, Nagoya-Shi, Aichi-Pref, Japan)
- 나고야국제센터빌딩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23층으로 이동
- 소요시간은 약 60분이며 요금은 약 13,000엔

2) 공항버스

- 중부국제공항 1층 버스정류장에서 나고야역행 메이테츠 공항버스 탑승
- 나고야역 남쪽 소재 메이테츠 버스센터 도착 후 나고야역 방향 이동
- 나고야역 내 Uni Mall 지하상가를 따라 동쪽으로 약 7-8분 보행 후 국제센터역(지하철 사쿠라도오리선, 櫻通線)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나고야국제센터빌딩 23층 이동
- 버스는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10시 15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운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4월 15일부터 운행 정지 중)
-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며 요금은 1,300엔

3) 열차

- 중부국제공항 제1터미널 2층 액세스플라자(アクセスプラザ)에서 메이테츠 열차 나고야역 행 탑승, 뮤티켓(쾌속) 발권 시 탑승 시간 단축 가능
- 나고야역 내 Uni Mall 지하상가를 따라 동쪽으로 약 7~8분 보행 후 국제센터역(지하철 사쿠라도오리선, 櫻通線)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나고야국제센터빌딩 23층 이동
- 배차 간격은 오전 6시 11분부터 오후 11시 31분까지 7~30분 간격
- 소요시간은 쾌속 약 30분, 특급 및 급행 약 45분
- 요금은 쾌속 1,250엔, 특급 및 급행 890엔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